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碩士學位論文

제주 몽골유적의 건축적 의의에 관한 연구

濟州大學校 大學院

建 築 工 學 科

바드만양보 어융만다하

2012年 2月

제주 몽골유적의 건축적 의의에 관한 연구

指導敎授　金　炯　俊

바드만양보 어융만다하

이 論文을 建築工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1年　10月

바드만양보 어융만다하의
建築工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

委　　員 _____ ㊞

委　　員 _____ ㊞

濟州大學校 大學院

2011年　12月

dCollection @ jeju

A Study on the Architectural Significance of the Mongolian Heritage in Jeju

Badmaanyambuu Oyunmandakh

(Supervised by professor Hyoung-Jun Kim)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Science

2012. 2.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Department of Architectural Engineering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Collection @ jeju

목 차

국문초록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

1.2 연구의 대상과 방법 ····· 2

2. 제주와 몽골의 역사적 관계

2.1 탐라와 몽골과의 관계 ····· 3

2.2 몽골시대의 제주 ····· 5

2.3 삼별초와 항몽세력 ····· 12

2.4 몽골시대 이후의 제주 ····· 18

3. 제주의 몽골유적

3.1 제주마 방목지와 제주목마장 발상지 ····· 25

3.2 환해장성 ····· 29

3.3 제주항파두리 항몽유적지, 항파두리성내의 유적 ····· 33

3.4 법화사 ····· 37

3.5 원당사지 오층석탑 ····· 43

3.6 열녀정씨지비, 유수암리 산새미오름방묘 ····· 47

4. 제주 몽골유적의 건축적 가치와 의의

4.1 법화사의 건축적 가치와 의의 ····· 51

4.2 원당사지와 원당사지 오층석탑의 가치와 의의 ····· 52

4.3 제주항파두리 항몽유적지의 가치와 의의 ····· 53

dCollection @ jeju

V. 결 론 ····· 54

참고문헌 ····· 56

Abstract ····· 58

dCollection @ jeju

그 림 목 차

그림 1. 1200년대 제주의 지리적 위치 ····· 3
그림 2. 몽골의 황제 쿠빌라이 (세조) ····· 4
그림 3. 수산평 일대의 풍낭못 ····· 8
그림 4. 신증동국여지승람 중 제주목, 성씨조 부분 ····· 10
그림 5. 환해장성(화북) ····· 14
그림 6. 환해장성(애월) ····· 15
그림 7. 명월포 전투 전계도 ····· 21
그림 8. 탐라순력도 (공마봉진) ····· 23
그림 9. 서아막과 동아막 ····· 27
그림 10. 제주도 환해장성 위치도 ····· 29
그림 11. 별도 환해장성 배치및 위치도 ····· 30
그림 12. 곤을동 환해장성 배치및 위치도 ····· 31
그림 13. 애월 환해장성 배치 및 위치도 ····· 31
그림 14. 항몽순의비 설치 전경 ····· 34
그림 15. 항파두리성 ····· 35
그림 16. 현 법화사 내 구화루와 구품연지 ····· 37
그림 17. 법화사지 출토 운용문 막새 ····· 38
그림 18. 옛 법화사지 대형 주초석 ····· 38
그림 19. 법화사지 발굴 현장 ····· 39
그림 20. 현 법화사와 대웅전 ····· 41
그림 21. 원당사지 오층석탑 위치도 ····· 43
그림 22. 원당사지 오층석탑 ····· 45
그림 23. 원당사지 오층석탑 입면도 ····· 46
그림 24. 열녀정씨지비 ····· 47
그림 25. 유수암리 산새미 오름 방묘 ····· 49
그림 26. 유수암리 산새미 오름 방묘 위치도 ····· 50

dCollection @ jeju

표 목 차

표 1. 연구 대상 시대별 연표 ····· 25
표 2. 환해장성 비교 ····· 31

dCollection @ jeju

국문초록

탐라국시대부터 4·3항쟁에 이르기까지 제주의 역사는 그 어느 지역보다 더 복잡하고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 자주적인 국가로서 시작한 탐라국은 고려시대에 제주로 편입되었으며, 삼별초의 항쟁을 거쳐 몽골로부터 100여년의 지배를 직접 받기도 하였다. 이 당시 섬이라는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몽골의 영향에 직접적인 영향권 안에 있었으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몽골의 문화가 제주에 전해졌다. 몽골과 고려에 의해 운영된 국영목장에서 말이 길러졌으며, 몽골인과 제주인의 혼인은 새로운 양식의 관습을 만들어내기도 하였다.

이러한 직접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몽골의 지배하에 있었던 고려시대의 제주에 남아있는 몽골유적은 많지 않다. 법화사나 원당사지 오층석탑 정도가 손에 꼽을 정도이다. 그러나 제주에 남아있는 몽골유적이 비록 소수이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몽골유적의 가치는 그 의미가 크다. 특히 몽골이라는 외래문화의 직접적인 영향을 100여 년간 받았다는 점에서 그 영향은 쉽게 간과하기 어렵다. 이러한 영향권에는 건축도 포함되어 있다. 몽골에 의해 중창되었을 것으로 여겨지는 법화사의 경우도 몽골과의 관계를 벗어나 설명하기 어렵다. 원당사지 오층석탑도 석탑의 형식이나 재료적인 측면에서 몽골과 제주의 토착성을 함께 생각할 필요가 있다. 몽골과 관련된 삼별초의 항쟁과 그 유적 또한 제주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남아있는 몽골유적을 토대로 그 안에 담겨진 건축적 의미와 가치를 새겨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현재 제주에 남아있는 몽골유적을 살펴보고, 그 실례를 중심으로 몽골유적이 가진 건축적 의미와 가치를 밝혀보았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몽골유적은 1. 제주마 방목지, 제주목마장 발상지, 2. 환해장성, 3. 제주항파두리 항몽유적지, 항파두리성 내외 유적, 4. 법화사, 5 원당사지 오층석탑, 6. 열녀정씨지비, 유수암리 산새미오름방묘이다.

위 연구대상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역사적, 문화적 접근을 통해 몽골과 제주의 관계를 분석한 후, 연구대상에 담겨진 건축적 의미와 가치를 살펴본 결과 몽

dCollection @ jeju

골과 제주는 역사적, 문화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몽골의 문화가 영향을 주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몽골과 제주의 관계에 대한 역사적, 문화적 고찰은 유의미함을 알 수 있다.

dCollection @ jeju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탐라국시대부터 4·3항쟁에 이르기까지 제주의 역사는 그 어느 지역보다 더 복잡하고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 자주적인 국가로서 시작한 탐라국은 고려시대에 제주로 편입되었으며, 삼별초의 항쟁을 거쳐 몽골로부터 100여년의 지배를 직접 받기도 하였다. 이 당시 섬이라는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몽골의 영향에 직접적인 영향권 안에 있었으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몽골의 문화가 제주에 전해졌다. 몽골과 고려에 의해 운영된 국영목장에서 말이 길러졌으며, 몽골인과 제주인의 혼인은 새로운 양식의 관습을 만들어내기도 하였다.

이러한 직접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몽골의 지배하에 있었던 고려시대의 제주에 남아있는 몽골유적은 많지 않다. 법화사나 원당사지 오층석탑 정도가 손에 꼽을 정도이다. 그러나 제주에 남아있는 몽골유적이 비록 소수이기만 그 안에서 담겨있는 몽골유적의 가치는 그 의미가 크다. 특히 몽골이라는 외래문화의 직접적인 영향을 100여 년간 받았다는 점에서 그 영향은 쉽게 간과하기 어렵다. 이러한 영향권에는 건축도 포함되어 있다. 몽골에 의해 중창되었을 것으로 여겨지는 법화사의 경우도 몽골과의 관계를 벗어나 설명하기 어렵다. 원당사지 오층석탑도 석탑의 형식이나 재료적인 측면에서 몽골과 제주의 토착성을 함께 생각할 필요가 있다. 몽골과 관련된 삼별초의 항쟁과 그 유적 또한 제주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남아있는 몽골유적을 토대로 그 안에 담겨진 건축적 의미와 가치를 새겨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현재 제주에 남아있는 몽골유적을 살펴보고, 그 실례를 중심으로 몽골유적이 가진 건축적 의미와 가치를 밝혀보고자 한다. 이는 향후 제주건축을 이해하는 또 다른 측면이 될 것이며, 몽골과의 관계 정립에도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다.

dCollection @ jeju

1.2 연구의 대상과 방법

제주의 몽골유적에 나타난 건축적 의미와 가치를 밝히기 위해 본 연구는 제주에 남아 있는 주요 몽골유적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또한 몽골과 관련된 역사적 사건들의 유적도 본 연구의 연구대상으로 포함한다. 이는 몽골과 제주의 관계를 폭넓게 설정하여 상호관계의 연관성과 의미를 더 심도 있게 분석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구체적은 연구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제주마 방목지, 제주목마장 발상지(수산평)
2. 환해장성
3. 제주항파두리 항몽유적지, 항파두리성 내외 유적
4. 법화사
5. 원당사지 오층석탑
6. 열녀정씨지비, 유수암리 산새미오름방묘

위 연구대상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역사적, 문화적 접근을 통해 몽골과 제주의 관계를 분석한 후, 연구대상에 담겨진 건축적 의미와 가치를 드러내고자 한다. 곧 몽골과 제주의 관계를 역사적, 문화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연구대상의 실제적인 요소를 사료의 객관적인 측면에서 정리한 후, 그 사이에서 나타나는 건축적 의미와 가치를 정리하고자 한다.

몽골유적이 가진 건축적 의의를 밝힌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보다는 인문학 적이고 역사적인 점에서 서술하고 살펴보는 방법으로 연구대상인 몽골유적에 접근하고자 한다. 이는 사실요소의 열거보다는 의미와 가치를 기술하는 것이 향후 몽골과 제주의 관계정립과 건축적인 영향관계를 설정하는데 더 의미 있기 때문이다.

dCollection @ jeju

2. 제주와 몽골의 역사적 관계

2.1 탐라와 몽골의 관계

고려 원종 8년인 1267년, 제주토착세력은 몽골에서 몽골황제를 만나게 된다. 후에 원으로 국호를 정하였는데 본 논문에서는 몽골로 사용하겠다.

당시 몽골황제는 세조[쿠빌라이:1260~1294] 이였는데 몽골의 역사에는 탐라를 고려국이 아닌 백제국의 신하로 기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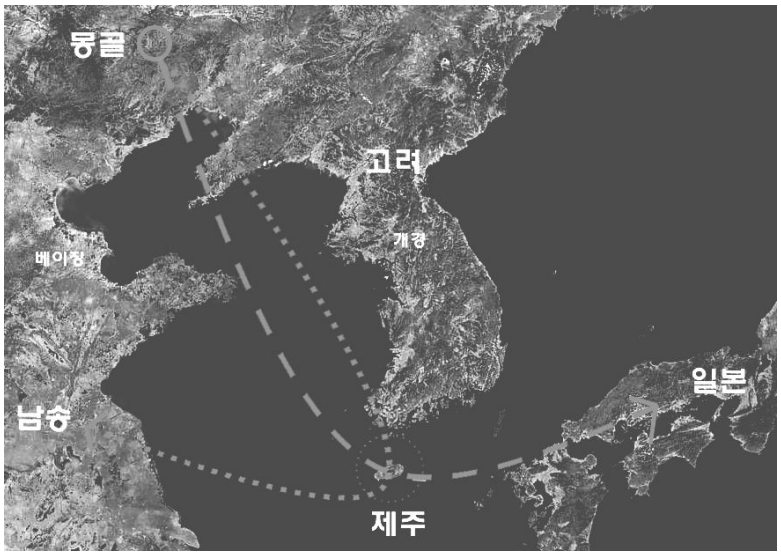


그림 1. 1200년대 제주의 지리적 위치

탐라지역은 고려시대 초창기부터 고려에 편입되었고, 1229년(고종 16) 이전에 이미 제주라는 명칭을 쓰고 있었다. 그런데 왜 몽골은 탐라에 관심을 보였으며, 백제국의 신하라고 했던 것인지 주목해야 한다.

당시 몽골은 북쪽에 있는 거의 모든 나라를 정복했지만 중국 남쪽의 남송과 바다 가운데 있는 일본은 정복하지 못하였다. 탐라의 지리적 위치가 남송과 일본의 중간지점에 있었기 때문에 두 나라 정벌시 군사적 요충지로 활용하기에 중요

dCollection @ jeju

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즉, 백제국의 신하라고 표현하는 것은 탐라를 고려를 통한 간접적 관계가 아닌 몽골의 직접적인 관계를 정립하여 남송과 일본의 정벌시 전략적 거점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그림 2. 몽골의 황제 쿠빌라이 (세조)

dCollection @ jeju

2.2 몽골시대의 제주

1273년(원종 14) 4월에 항몽 세력인 제주삼별초가 평정되었다. 몽골은 같은 해 6월에 관부를 설치하여 제주를 직접 지배하였다. 당시 몽골의 직할령이 된 지역은 제주 외에 화주, 서경이 있었는데 그 지배 방법에 있어서 중요한 차이를 보인다.

화주와 서경은 각각 쌍성총관부, 동녕부를 설치하여 토착세력을 통한 간접적 지배방법을 택하였지만 탐라는 탐라총관부를 설치하고 몽골의 관인을 보내어 직접 지배하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다.

당시 몽골이 제주에 설치한 관부는 '탐라국초토사'이다. 이미 사용하던 이름 '제주'를 버리고 '탐라'로 불렀던 것이다. 제주가 고려 영역에 속하기 이전부터 쓰인 전통적 이름인 '탐라'를 사용함으로써 고려와의 관계를 끊고 직접적으로 관여하려는 의도였다.[1)]

직할령으로 삼자마자 몽골은 탐라를 지배하기 위하여 몇 가지 조치를 하게 된다. 우선 삼별초에 동조하였던 일부 탐라인을 육지부로 이주시켰다. 이는 탐라 지배의 불안한 요소를 미리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며 민심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곡식을 지급하도록 고려에게 명하기도 하였다.

몽골이 이렇게 탐라의 지배를 미리 계획한 것은 탐라를 직접 지배하여 일본과 남송을 정벌하는 데 지리적 요충지로서 뿐만 아니라 군마를 육성할 수 있는 천연의 방목지와 군사용 배를 건조할 목재의 확보 등 군사기지의 중요성을 알았던 것이다.

군사기지로의 목적으로 몽골은 장기적으로 군마를 육성하기 위해 몽골말을 가져와 지금의 성산읍 수산리 일대에 방목을 하게 되고 제2차 일본정벌을 준비를 위해 군사용 배를 건조할 목재를 탐라에서 공급하기도 한다.

몽골은 1279년(충렬왕 5)에 남송정벌은 마쳤지만, 일본정벌은 두 차례 실패하고 다시 일본정벌에 대한 추진과 중지를 반복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탐라인들

1) 이영권, 제주 역사 기행, 한겨레신문사, 2004, pp.59-80.

dCollection @ jeju

에게 심각한 곤욕을 안기게 된다. 탐라를 정복지로 생각하여 마치 식민지처럼 탐라인들을 동원하여 혹사시켰기 때문이다.

몽골의 일본정벌이 실패하고, 이에 집착하던 황제 세조(쿠빌라이)가 사망하자 고려의 요청에 의해 탐라를 고려에 환속하였던 적도 있었다. 그로부터 80여 년 동안 제주는 고려와 몽골에의 귀속이 반복된다. 그러나 제주로서는 설치된 지배기구의 관할권 소재가 고려에 있느냐 몽골에 있느냐 하는 현상적인 변화였을 뿐이다.[2] 1267년(원종 8) 제주와 몽골의 첫 만남이 이루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몽골의 직할령이 된 다음, 제주는 100여 년 동안 이중으로 귀속된 채 몽골의 영향력을 받는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이다. 그 100여 년 동안 제주사회는 큰 변화를 겪게 된다.

몽골과의 만남이 가져온 제주사회의 가장 큰 변화는 목축업이었다. 그 이전부터 제주는 말 사육이 번성했던 지역이다. 고려가 전국의 여러 섬에다 말을 키우고 번식하게 해서 세금으로써 국가 수요에 충당했는데, 그 수요의 상당부분을 제주가 채웠다. 그만큼 제주는 말을 기르기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몽골이 "탐라를 방성 분야로 여겨 목장을 설치했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방성'은 말의 수호신으로 부르는 별자리다. 탐라는 천연의 말 방목할 수 있는 지역이었다.

몽골이 몽골마를 들여와 동쪽의 수산평 일대에 풀어놓음으로써 몽골식 목마장이 제주에 처음 들어서게 되며 말을 기르고 관리할 '하치'들도 보내게 된다. '하치'들은 몽골족 가운데에서도 목축기술이 뛰어난 자들로 선발되어 제주에 왔으며 '목호'라고도 일컬어졌다. 이후 목마장은 지금의 한경면 고산리 일대의 서쪽으로 확대된다. 말이 잘 번식되자 몽골은 몽골말을 계속 들여오는 등 제주에서의 말 육성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

하지만 1294년(충렬왕 20)이전까지 몽골은 탐라 말을 본국으로 가져가지는 않은 것 같다. 충렬왕 20년에 몽골의 황제 쿠빌라이의 사망으로 몽골의 일본 정벌이 완전히 중단되는 시기에 탐라인들은 몽골에 말 400필을 바쳤다는 문헌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몽골이 일본 정벌을 추진 중에는 군사·병참기지로 운영되어

2) 이영권, 제주 역사 기행, 한겨레신문사, 2004, p.67.

dCollection @ jeju

말은 일본 정벌을 위해 탐라에 그대로 비축해두었기 때문이다.

몽골은 일본정벌이 완전히 중단된 후에 탐라를 물자수탈에 초점을 두고, 탐라로부터 말을 비롯해 쇠고기, 피화, 수유, 포 등 목축과 관련된 품목의 물자들을 거두어갔다. 그러다보니 제주의 말과 소의 개체 수는 크게 증가하고 목축시설과 목축인구도 증가하게 되며 1300년(충렬왕 26) 무렵에는 동·서 목마장이 동·서 아막(阿幕, 궁궐 숙위와 근시의 임무를 맡은 관직. 가문과 재능 및 용모를 살펴 임명하였으며, 임기가 끝나면 도목(都目)에 의해 관직을 주었음. 후에 재능이나 가문과 상관없이 군역을 피하려 하거나 관직을 얻으려 하는 자가 많이 채용되면서 폐단이 되기도 하였음)으로 일컬어지기도 한다. 탐라목마장은 이때 이미 몽골의 14개 국립 목장 가운데 하나였던 것이다.

동·서 아막의 말은 몽골족 목호에 의해 사육되고 방목되었다. 몽골의 목축기술자들인 목호들은 몽골의 전통방식으로 제주말들을 사육했다. 특히 목초가 풍부하게 나는 지역을 계절별로 찾아 말들을 몰고 다니며 사육했기 때문에 제주 전 지역이 방목지로 활용되었다. 하지만, 목초가 부족한 겨울철에는 한 곳으로 모아 미리 준비한 말린 목초와 곡초를 먹이는 제주우마사육방식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제주사람들도 목호의 방식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 중산간 지대 이상까지 방목지가 확대된 점과, 말 명칭, 말안장, 우마 낙인 등도 몽골의 영향에서 비롯된 흔적들이다.

탐라인과 몽골의 목호가 서로 목축방법에서 영향을 주고받으며 말과 소 등을 기르게 된 이후로 우마 사육 규모가 커지고, 목축에 관련된 산물의 양도 크게 늘어나는 등 제주 목축업은 급속히 성장하게 되고 제주의 중요한 경제활동으로 자리 잡으며 제주 중산간 지대의 마을 형성을 가속화하게 된다.

원래, 제주는 주로 해안지대에 마을을 이루고 살고 있었다. 제주의 경제는 농업생산만으로 생활할 수 없을 정도로 낮아 제주인들은 농경지와 바다를 오가며 반농반어 형태의 생산 활동을 할 수 밖에 없었다. 또한, 농경에 적합한 토양과 물도 해안지대에 집중되어 있었던 것도 원인이기도 하다. 제주에는 고려 전기까지만 해도 해안과 멀리 떨어진 산촌이 거의 없었다. 그러다 농업 기술력이 발전하면서 농경지가 중산간 지대로 천천히 확대되기 시작한다.

제주 중산간 지대의 마을은 대체적으로 14세기 초 무렵부터 이루어진 것으로

dCollection @ jeju

파악되고 있다. 이 시기는 탐라목장이 몽골제국의 14개 국립목장 중 하나로 될 만큼 목축이 번성할 때였다.

농경이 발전하고 확대되는 추세에 몽골의 영향으로 인한 목축업의 성장과 인구유입이 맞물리면서 산촌 형성이 가속화되어 나간 셈이다.

이로써 제주의 마을은 주민들의 생업활동이 반농반어 형태를 띠는 해촌과, 반농반목 형태를 띠는 산촌으로 크게 나누어지게 된다.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에는 '큰물메'라 부르는 대수산봉이 있다. 대수산봉은 높이 100m쯤 되는 가파른 오름이다. 이 오름의 원래 이름은 '물메', 이름처럼 샘솟는 못이 있었는데 호종단이 제주섬 수맥의 기운을 누르러 왔을 때 그 수맥도 끊어버려 물이 그쳐버렸다는 전설이 전해진다.[3] 근처에 물메라는 오름이 하나 더 있어 그곳은 '작은물메[소수산봉]', 이곳은 '큰물메[대수산봉]'가 됐다.

오름 정상에는 조선시대에 설치했던 군사통신 시설인 봉수의 흔적이 있다.

그림 3. 수산평 일대의 풍낭못

대수산봉을 중심으로 펼쳐진 광활한 지대가 바로 수산평이다. 1276년(충렬왕 2년), 당시 탐라 관부의 최고책임자 '다루가치'로 부임해온 탑랄적이 몽골에서 몽

3) 한국 지명 유래집 전라 · 제주편, 2010, 국토지리정보원

dCollection @ jeju

골말 160마리를 가지고 와서 방목하여 시작된 제주 목마장의 발상지이다. 다음해에 목마장은 서쪽의 한경면 고산리 일대로 확대된다. 이 목마장에서 말이 잘 번식되자 몽골은 계속 말을 들여왔다. 충렬왕 26년(1300년)에는 몽골 황태후의 마구간 말도 방목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다. 이때 탐라목마장은 동·서 아막으로 일컬어진다. 이때쯤에 이미 몽골의 14개 국립목장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고 있었다.

제주와 몽골의 역사적 교류는 제주의 인구가 크게 증가하는 변화를 가져다준다. 몽골이 직할령으로 삼은 초창기의 1만여 명에 불과했던 인구수가 1374년(공민왕 23)에 이르러서는 3만 명 내외에 이를 정도로 늘어나게 된 것이다.

제주와 몽골은 대립과 갈등관계로 이어진 경우도 많았지만 대다수의 몽골족은 제주에 들어와 정착하고 제주사람들과 더불어 공존하였다. 그러는 동안에 문화적 교류도 직접적이며 일상적으로 이루어졌다.

몽골족이 제주에 오기 시작한 것은 몽골이 제주를 직할령으로 삼은 1273년(원종 14)부터이다. 그때 몽골은 700명의 몽골군을 주둔시키고 몽골관인도 파견하였다. 그 후에도 몽골이 보낸 군사는 점점 늘어나 제주의 1차 환속이 이루어지는 1294년(충렬왕 20) 이전 무렵까지는 최소한 1,400명의 몽골군이 주둔했다.

군사 뿐 아니라 몽골 본국의 죄수뿐만 아니라 왕족, 관료 등이 유배지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몽골이 제주에 설치한 목마장을 주관하는 목호(하치)도 적지 않게 제주에 유입되었다.

1366년(공민왕 15) 이후에도 몽골은 당시 원나라의 마지막 황제인 순제가 피난할 궁전을 짓기 위해 목수 등 대다수의 몽골족을 제주에 보냈다.

그렇게 1273년부터 제주에 오기 시작했던 몽골족은 공민왕때(1352~1374)에 이르러서는 자신들이 모여 사는 부락을 이룰 정도로 상당수가 정착하거나 오랜 기간 동안 거주하였다. 당시 제주사회의 몽골세력이 어느 정도였고, 제주에서의 삶이 어떠했을 지가 짐작되게 한다.

dCollection @ jej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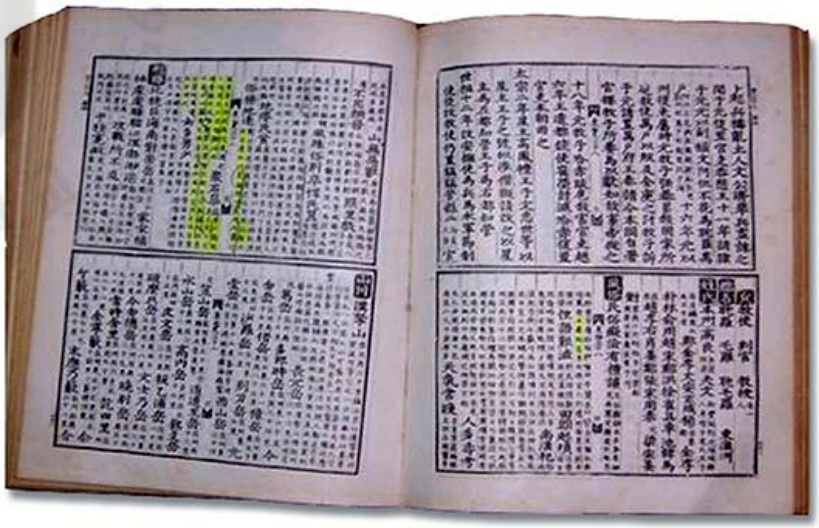


그림 4. 신증동국여지승람 (제주목, 성씨조 부분)

『동국여지승람』이 편찬된 16세기 전반까지 제주지역에 살았던 주민이 지닌 성씨 중에는 몽골의 원을 선향으로 삼은 조(趙), 이(李), 석(石), 초(肖), 강(姜), 정(鄭), 장(張), 송(宋), 주(周), 진(秦) 등과, 명나라가 유배 보냈던 몽골왕족으로서 운남을 선향으로 삼은 양(梁), 안(安), 강(姜), 대(對) 등이 있었다. 이들 성씨를 지닌 주민들은 제주가 몽골의 직할령으로 된 뒤 제주에 들어와 살았던 몽골족, 혹은 그들과 제주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후손들이었다.

제주 인구는 다른 곳으로부터 사람이 유입되어 점차적으로 증가하였지만, 몽골시대에 들어온 몽골족이 제주여자와의 혼인으로 인하여 더욱더 늘어나게 된 것이다. [4]

몽골족과의 혼인은 당시 전국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심지어 왕족까지도 행해졌다. 고려왕은 몽골의 공주와 결혼해야 했고, 왕위 계승권도 몽골공주가 낳은 왕자가 우선순위를 갖고 있었다. 고려에 몽골 황제가 고려여자와의 혼인에 관한 지침을 내릴 정도로 고려여자와 혼인이 성행했다.

제주는 몽골과의 만남이 100여 년 동안 지속되면서 제주사회의 주도권을 장악한 목호 등의 몽골족과 제주여자의 혼인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였다. 그러다보

4)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역사기행 제주 몽골을 만나다, 건원인쇄사, 2010, p.74.

dCollection @ jeju

니 반 몽골족화 된 제주사람들도 상당수였고, 이들 역시 원이나 운남을 선향으로 삼는 성씨를 가지게 된다. 그렇게 몽골족 혹은 몽골족과 제주여자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은 제주인 들과 동화되고, 흡수되어 가며 같이 살아갔다. 그들로부터 제주 사람들이 받은 문화적인 영향도 적지 않았다.

dCollection @ jeju

2.3 삼별초와 항몽세력

몽골과의 전쟁은 끝났지만 고려는 또 다른 전쟁을 시작해야 했다. 고려정부에 반기를 들고 항몽을 내세운 '삼별초'가 등장한 것이다.

1219년(고종 6) 무신집권한 최우가 1230년(고종 17) 경에 야간 치안유지를 위해 야별초를 조직하게 되는데, '별초'란 '가려 뽑은 부대'라는 뜻으로 야별초에 소속한 군사가 많아지자 좌별초와 우별초로 나뉘게 된다. 그리고 몽골과의 전쟁 중 포로가 되었다가 탈출한 병사 등으로 신의군을 조직하게 된다. 좌별초와 우별초 그리고 신의군이 합해진 것이 바로 '삼별초'이다.

삼별초는 국가의 공적인 군대였지만 동시에 무신정권의 군사적 기반이었다. 그것은 무신정권 말기에도 별로 다르지 않았다. 그 삼별초가 무신정권을 붕괴시키는 주력이 되었던 것이다.

무신정권은 삼별초 가운데서도 특히 야별초의 군사력에 많이 의지하고 있었다. 야별초는 무신집정자에 직속이 되어 있었지만 신의군과 달랐다. 신의군은 몽골과의 전쟁 중에서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해 설치되었던 군사이기 때문에 야별초와는 그 기원을 달랐다. 원종에 호응해 마지막 무신집정자를 제거하는 데에 투입된 주력부대는 바로 신의군이었던 것이다.

무신정권의 붕괴는 몽골에 부응하는 왕정복고를 의미하는 가지는 것이고 동시에 개경 환도로 바로 직결되는 것이다. 1270년(원종 11) 5월 15일 무신정권이 붕괴되자, 5월 23일 개경환도가 결정되었다. 이는 이미 예견된 경로였다. 그런데 1270년 6월 1일 삼별초가 다시 반기를 들었던 것이다.

개경환도를 주도한 왕정에 대한 삼별초의 봉기는 5월 23일 이미 시작되어 있었다. 이 봉기를 주도한 것은 야별초였는데 이에 대해 원종은 5월 25일에 회유를 시도했고, 5월 29일에는 삼별초의 혁파를 통고하였다. 이 '혁파'라는 강경조치가 삼별초군을 극도로 자극하였다. 그리고 사태의 추이를 보고만 있었던 다수의 삼별초군이 태도를 명확히 하는 계기가 된다.

봉기는 주로 야별초의 군사력에 의해 이루어졌고 신의군이 이에 부응함으로써

dCollection @ jeju

삼별초는 비로소 일체화된 집단으로 결합하게 된다. 6월 1일 왕족 승하 후 온을 새로운 왕으로 삼고 고려의 개경정부에 반기를 들게 된 것이다.

이후 삼별초가 근거지로 삼을 지역으로 꼽았던 곳이 제주였다. 항몽을 내세워 남하할 때 제주와 진도를 저울질하다가 진도를 먼저 택하였고, 진도가 함락되자 결국 제주에 들어옴으로써 제주와 몽골이 만나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5)]

1270년(원종 11) 9월, 제주에는 고려 개경정부가 보낸 관군이 들어와 있었다. 진도를 항전 거점으로 삼고 남해의 섬들과 연안 지역을 장악한 삼별초가 제주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제주의 방어군은 김수의 200명 관군과 현지민 그리고 삼별초의 위협이 높아지자 추가로 파병된 고여림의 군사 등 1천여 병력을 확보하고 있었다. 이들은 삼별초가 별도포로 들어올 것이라 예상하고 주변에 방어시설인 성을 쌓았다. 그 성이 제주해안을 두루고 있는 환해장성의 시작이다.

1270년 11월 3일 진도삼별초는 이문경 부대를 보내 제주점령에 나서는데, 그러나 개경정부 관군의 예상과 달리 서쪽에 명월포로 들어온 뒤 동쪽으로 나아가 동제원에 주둔하게 된다. 그리고 관군을 역습해 송담천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인다. 이 싸움으로 관군은 모두 전몰하고 삼별초는 조천포에서 웅거하게 된다.

1271년 5월 진도삼별초가 여·몽연합군에게 함락하게 된다. 삼별초의 상징적인 왕이었던 승하 후 온은 이때 무참히 살해된다. 김통정이 남은 무리를 이끌고 제주로 들어왔고 남해도에 있던 유존혁도 80척의 선단을 이끌고 들어와 합류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제주를 새로운 발판으로 삼은 삼별초는 항전활동을 재정비하게 된다.[6)]

제주에 들어온 삼별초가 먼저 주력했던 일은 방어시설을 구축하는 것이다. 환해장성을 쌓고 내성과 외성의 이중으로 된 항파두리성을 쌓고, 항파두리성과 가까운 포구이자 삼별초 수군의 거점이었던 애월포에 애월목성을 쌓았다. 나무로 쌓은 성이었던 애월목성은 조선 초기까지 절반쯤의 흔적이 남아있었다고 한다.

1년여 동안 방어시설 구축에 주력한 제주삼별초는 1272년(원종 13) 3월부터 전

5) 국립 제주 박물관, 제주의 역사와 문화, 통천문화사, 2001, pp.108-112
6) 국립 제주 박물관, 제주의 역사와 문화, 통천문화사, 2001, p.113

dCollection @ jeju

라도 연해 지역을 대상으로 군사 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점차 활동 범위를 넓히는데, 충청도와 경기도 서해 연안에 이르러 개경을 위협하며 지방 관아 등을 적극적으로 공략해 나아갔는가 하면, 몽골군의 주둔지였던 경상도 연안에 이르기 까지 활동영역을 확대시키는 대담성을 보이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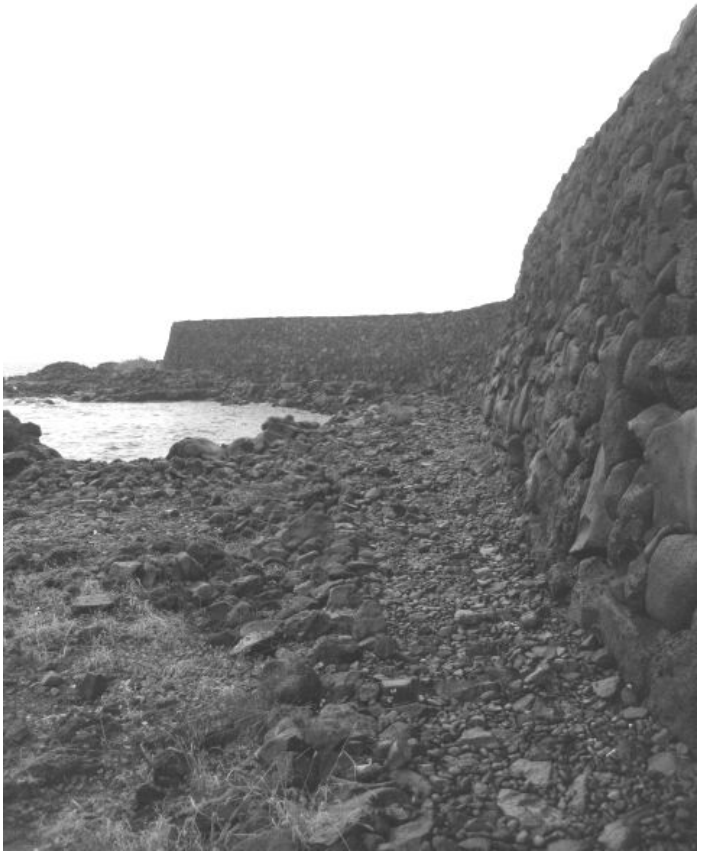


그림 5. 환해장성(화북)

제주 삼별초군은 그렇게 본토의 여러 지역을 위협하면서 고려를 긴장시켰다. 그러나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제주를 거점으로 하고 있다는 지리적 한계 때문에 산발적인 공격을 할 수 밖에 없었고 진도 거점 시기에 비해 그 기세가 많이 약화된 상태였다.

제주삼별초의 군사 활동이 활발해지자 고려와 몽골은 사신과 김통정의 조카 등을 보내 회유하려 했지만, 제주삼별초는 강력하게 거부한다.

dCollection @ jeju

고려는 몽골에게 삼별초 토벌을 거듭 요청하였고, 몽골도 일본 정복에 앞선 정

그림 6. 환해장성(애월)

지작업으로 탐라 평정을 결정하게 된다.

『원사』에 몽골의 결정을 기록한 부분을 보자면, '입조(入朝)여부가 불투명한 일본보다는 탐라를 먼저 평정하는 것이 순서에 맞고, 일찍 입조했던 탐라국 왕이 지금 역적들에게 축출되었으니 군사를 일으켜 토벌함이 의리상 앞서 행해야 할 일' 이라는 의미를 담은 내용이 나온다. 당시 제주에 대한 몽골의 생각을 엿보게 하는 부분이다.[7)]

1273년(원종 14) 4월, 고려 개경정부의 김방경과 몽골의 홍다구 등이 군용선 160척과 여·몽연합군 1만2천 명을 이끌고 제주바다로 들어온다. 이들은 중군, 좌군, 우군 등 3군으로 공격진용을 편성하였고, 세 지점에서 공격을 진행하였다.

지휘부가 있는 주력군이었던 중군은 항파두리성에서 동쪽으로 멀리 떨어진 함덕포로 들어왔다. 중군이 외곽지역인 함덕포를 상륙지점으로 택한 것은 삼별초 지휘부를 직접 공격하기보다는 공격군을 일단 외부에서 보호를 하면서 제주를

7)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역사기행 제주 몽골을 말하다, 건원인쇄사, 2010, p.23.

dCollection @ jeju

전체적으로 제압함으로써 상황에 따른 임기응변을 쉽게 하려는 전략이었다. 좌군의 30척 병력은 항파두리성에서 서쪽으로 약간 떨어진 비양도를 교두보로 한림 해변으로 들어온다. 우군은 애월쪽으로 들어올 것처럼 하며 항파두리성의 방어 병력을 애월포로 유인하였다. 여·몽연합군의 우군이 애월포로 상륙할 것처럼 하면서 항파두리성의 방어군을 애월쪽으로 끌어내는 사이에 삼별초군은 지휘부를 공격해 들어간 것은 비양도로 들어온 좌군이었다. 『고려사』는 당시의 상황을 "좌군의 전함 30척이 비양도로부터 적[삼별초군]의 거점을 직공해 들어가니 적[삼별초군]들이 바람에 날리듯 자성으로 밀려들어갔다. 관군이 외성을 넘어 들어가 화시 4발을 쏘니 화염이 충천하여 적[삼별초군]의 무리가 크게 혼란되었다." 고 기록하고 있다. 삼별초군은 좌군의 공격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고 말았던 것이다.

제주삼별초의 활동반경 등으로 미루어 삼별초가 여·몽군의 대대적인 공세 정보를 몰랐을 리 없었다. 제주삼별초는 나름대로 여·몽군의 공세에 대비하고 있었다. 『고려사』는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이윽고 풍랑이 멎으므로 중군은 함덕포로 들어갔다. 이에 적[삼별초군]들이 암석 사이에 복병을 배치하고 있다가 소리치며 뛰어나와 이들을 막았다. 김방경이 모든 배를 함께 나가도록 재촉하니 대정 고세화가 먼저 몸을 던져 적진[삼별초군]에 뛰어들었고 사졸들도 기세를 타고 앞 다투어 나아갔다. 장군 나유가 정예군을 이끌고 뒤따라 이르러 (삼별초군을) 죽이고 잡음이 매우 많았다."

중군이 함덕포에 접근한 시간은 새벽이었다. 그리고 함덕포는 항파두리성과 비교적 멀리 떨어진 곳이었음에도 삼별초군이 해안에 매복해 중군의 상륙을 막으려고 했다. 삼별초는 여·몽의 공세에 대비해 해안의 북안에 광범위하게 군사를 배치해놓고 있었던 것이다. 김방경 등이 지휘하는 중군은 삼별초군의 방어에 부딪치기는 했지만 월등히 우세한 군사력으로 이를 곧 돌파하고 항파두리성으로 향했다.

항파두리성이 함락되기 직전, 삼별초 지휘부는 둘로 갈린다. 김통정을 중심으로 한 70여 명은 성을 탈출해 한라산으로 숨고, 일부는 여·몽연합군에게 항복한다. 이렇게 해서 여·몽연합군은 개경에서 출발한지 20일 만에 항파두리성을 함락시키게 된다. 성안으로 진입한 여·몽군은 삼별초의 지휘부를 붙잡아 6명을 공개

dCollection @ jeju

처형하고 35명은 포로로 하는 한편 항복한 삼별초의 사졸 1,300명을 포로로 붙잡아 귀환시켰다. 지휘부의 35명은 귀환 도중 나주에서 참수하였다. 한라산으로 들어간 김통정은 목매어 자결하였고, 그를 따르던 70여 명도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된다. 이로써 3여 년 동안 이어진 제주삼별초의 항몽활동은 종식되고 제주는 몽골이 직접 관리하는 직할령이 되고 만다.

제주에는 김통정과 관련된 설화가 많이 전해져 왔다. 설화들 속에는 항파두리성에 관련된 내용, 삼별초와 제주백성들과의 갈등, 여·몽연합군과 삼별초의 전투상황 등 역사적 사건들이 얽혀 있다.[8)]

설화들 속에 등장하는 당시 인물들은 흥미롭게도 이야기에 따라 상반된 인식으로 그려지기도 하는데, 김통정은 영웅으로 그려지기도 하고 패배자로 그려지기도 하고 더 나아가 당의 신으로 그려지기도 하는가 하면, 여·몽연합군의 장수들이 당신으로 그려지기도 한다. 제주 밖의 세력들로 인해 벌어지는 사건 속에 놓인 제주백성들의 생존전략과 의식이 투영되어 있는 것이다. 김통정이 여·몽연합군에 패배하지 않았더라면 몽골의 직할령이 되지 않았을 것이고 그에 따른 고초도 겪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읽혀지기도 한다.

8) 이영권, 제주 역사 기행, 한겨레신문사, 2004, pp.59-62.

dCollection @ jeju

2.4 몽골시대 이후 제주

동아시아의 대부분을 지배하며 번영하던 몽골족의 원나라는 내부의 국정이 해이해지기 시작하여 사회적 여러 모순들이 심화되어 갔다. 이에 편승해서 여러 지방에서 크고 작은 폭동이 일어났는데도 중앙에서는 권신들이 정쟁에 여념이 없었다. 폭동은 확대되어 한족에 의한 민족적 반란으로까지 발전하여 주원장에 의한 명조가 출현하면서 쇠망의 길로 접어든다.

이 시기에, 즉위전의 고려 공민왕은 원나라의 수도 대도(베이징)에서 직접 원의 쇠망의 징조를 목격하게 된다.

수십 년 동안 이어진 몽골과의 관계로 고려는 정치·사회·경제 전반적으로 황폐해져 있었다. 이에 자주성 회복과 개혁을 바라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었다.

반원의 기회를 모색하던 공민왕은 몽골이 1353년(공민왕 3)에 한족 장사성 등이 일으킨 반기평정에 실패하자 몽골의 쇠망을 확신하고 몽골에 붙어 막강한 위세를 떨치던 기철[기황후의 오빠] 등 부원배(원 간섭기에 원나라 사람과 혈연관계를 맺거나 원의 관직을 받아 그 힘을 빌어 고려에서 권력을 휘두른 사람)들과 근친들을 제거한 다음, 반원정책을 단행하게 된다. 그 뒤 제주는 반원정책에 반기를 드는 목호세력과 고려가 수차례 맞부딪치는 현장이 된다. 제주 관할 주도권도 몽골과 고려 사이를 오고가며 반복된다.

제주의 토착세력은 고려와 몽골, 혹은 목호가 미치는 영향력의 강도에 따라 행보의 향방을 움직였다. 제주인은 고려 관리의 잦은 수탈에 봉기를 일으키기도 하는 등 고려 관리에게 반감을 갖는 경우가 많아 목호세력에 기울어지기 쉬운 사정에 처해 있었다.

당시 제주에는 몽골족이 모여 사는 마을이 이미 이루어졌을 만큼 몽골인 수가 많았고 목호세력이 제주관할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이들이 제주를 '낙토'로 여길 정도였으니 탐라에 대한 몽골의 집착이 짐작되고도 남았다. 또한 제주가 중국대륙으로부터 한참 떨어진 지역이어서 피난뿐만이 아니고 훗날의 재기를 염두에 두었기 때문인 듯도 하다.

dCollection @ jeju

1368년(공민왕 17) 몽골은 수도를 명나라의 군대에 빼앗기고 황제와 황후 및 태자 등이 상도(上都, 중국 네이멍구 자치구 돌론 부근에 있는 원나라의 도성지)로 달아난다. 이에 고려는 몽골과 단교하고 명나라와 국교수립의 절차를 밟아 나간다.

1369년(공민왕 18), 제주에서는 고려관리가 목호에게 살해되는 일이 벌어진다. 몽골족의 원나라가 사실상 망한 지 1년이 지난 시점임에도 목호가 고려에 맞설 수 있었던 것은 목호의 세력기반이 여전히 건재했다는 이야기 이다.

1370년(공민왕 19), 고려는 명나라와 국교를 수립하는데, 국교수립 직후에는 탐라 일 처리에 대한 고려의 입장을 밝힌 '탐라계품표'를 보낸다. 이때 고려는 개국 이래 탐라와 연고를 맺어 관할해 왔음을 강조하면서, 몽골은 단지 탐라의 물과 목초를 활용해 말을 방목했을 뿐이라는 점을 애써 내세웠다. 그리고 몽골이 방목한 말 등은 탐라민이 맡아 기르게 하면 명에도 바칠 것이며 목호는 고려의 양민으로 삼겠다는 뜻도 밝혔다.

고려가 서둘러 탐라 일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중국의 새 주인이 된 명나라가 몽골 대신 탐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미리 막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탐라말의 조공 약속은 몽골이 말을 방목한데다가 목호의 관할로 말이 많아진 탐라를 빌미로 명나라가 침략할 수 있음을 염려한 공민왕의 의도에서 나왔을 것으로 보고 있다.

1372년(공민왕 21) 3월, 고려는 명나라에 바칠 말을 가지러 관리를 보냈지만 목호의 반발과 기세에 눌려 가져가지 못했다.

그해 4월에 목호가 반기를 일으켰는데, 6월에는 탐라민이 반기를 일으킨 목호를 죽인다. 목호세력이 강성했을 때는 이들에 동조했던 탐라민도 몽골이 사실상 망하고, 목호세력에 대한 고려의 압박도 점점 커가는 추세를 보자 목호세력을 거부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11월에야 고려는 탐라말을 거둘 수 있었고, 다음 해에는 목호가 명에 가져갈 말과 노새를 고려에 바치게 된다.

그런데 1년 사이에 고려가 명나라에 바친 탐라말은 겨우 4필이였다. 공민왕 22년에 명나라가 고려에 고압적 태도를 취하며 거론한 몇 가지 이유 중에 그 점을 질책하는 내용도 들어 있었다. 명이 몽골의 잔여세력을 정벌하는데 필요한 말을 탐라말로 충당하기 위해서도 고려를 압박했던 것이다.

dCollection @ jeju

1374년(공민왕 23) 명나라는 사신을 보내 고려에게 탐라에서 좋은 말 2천 필을 가려 뽑아 보내라고 한다. 이에 고려가 말을 가져가려 하자, 목호들은 자신의 황제 쿠빌라이가 풀어놓아 기른 말을 명나라에게 바칠 수 없다며 300필만 내주게 된다.

고려에 왔던 명나라 사신이 2천 필을 채워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자, 공민왕은 어쩔 수 없이 제주정벌을 결정하고 같은 해 7월 출정군을 편성하게 된다.

제주출정군은 최영을 총사령관으로 하는 정예군 2만5,605명과 전함 314척으로 구성된다. 출정군 말고도 예비부대가 경기·충청·전라도 지역에 따로 주둔했다고 하는데, 정예군만으로도 당시 제주인구와 맞먹었을 만큼 대규모였고, 뒷날 국경지대까지 더해 동원했던 요동정벌군 3만8,830명과 견주어도 크게 떨어지지 않는 병력이었으니 당시 고려가 제주의 목호세력을 얼마나 막강하게 여겼는지 짐작하게 된다. 사실 1366년(공민왕 15)에 배 100척을 거느려 목호평정에 나섰던 고려군사가 격퇴 당했던 일도 있었으니 그럴 만도 하다.

한편 제주 목호도 출정군에 전투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동·서 아막의 탐라목장 중 서아막을 관할하던 목호 석질리필사, 초고독불화, 관음보 등이 목호세력의 수뇌부였다. 이들은 기병 3,000여 명과 수많은 보병을 거느리고 제주 서쪽 명월포에 포진했다. 목호군이 수천 명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은 당시 마을을 이루어 살았을 몽골족, 이들과 혼인한 제주여성들 사이에 태어난 반 몽골족화의 제주민 그리고 고려관리의 잦은 수탈에 반감을 품었을 제주사람들도 가세했기 때문이다.

1374년(공민왕 23) 8월 명월포 바다에 다다른 최영은 목호무리의 항복을 권유하는 회유활동을 벌인 뒤, 먼저 전함 11척의 군사를 해안에 상륙시켰다. 그러나 포진해있던 목호군이 이들을 모두 살해해버린다. 겁을 먹은 고려출정군이 다음 공격 명령에 머뭇거리자 최영이 한 하급 장교의 목을 베어 조리 돌리는 일까지 벌어진다. 제주출정군은 최정예 대규모 병력으로 구성되었고 예비부대도 따로 대기하고 있었음에도 극도로 긴장했던 것이다. 종전에 고려군의 공략을 격퇴시켰던 목호군의 전투력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지만 제주사람들이 전부 목호와 결탁했을 것이라는 추측 때문에 긴장이 고조되었던 것이다.

다시 명월포 전투는 다시 벌어졌고, 이번에는 목호군이 밀리게 된다. 그 뒤 목호군이 서남부 쪽으로 계속 밀리면서 전투는 명월촌[한림읍 명월리] → 어름비

dCollection @ jej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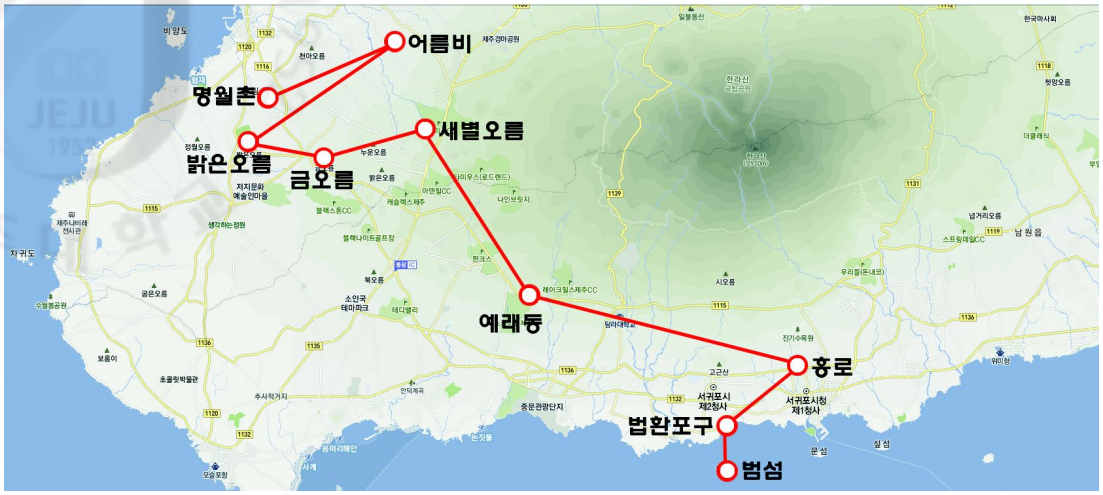


그림 7. 명월포 전투 전계도

[애월읍 어음리] → 밝은오름[한림읍 상명리] → 금오름[한림읍 금악리] → 새별오름[애월읍 봉성리] → 예래동[서귀포시 예래동] → 홍로[서귀포시 동·서홍동] → 법환포구[서귀포시 법환동] → 범섬 등지로 이어지며 한 달여간 밤낮으로 치열한 전투가 전개된다.

전투에 밀린 목호군 수뇌부는 마침내 서귀포 앞바다 범섬으로 후퇴한다. 최영이 배 40척을 몰고 직접 범섬을 압박해 들어간다. 이에 초고독불화와 관음보는 벼랑에서 몸을 던져 자살하고, 석질리필사는 항복한다. 그러나 최영은 석질리필사는 물론이고 그의 아들 3명의 목을 베어 죽이고, 자살한 목호의 시신을 찾아내 목을 베어 개경으로 보낸다.

범섬 전투 이후 최영은 사태를 수습하려 했지만, 동아막의 목호 석다시만, 조장홀고손 등이 수백 명을 거느리고 성에서 계속 저항하였다. 최영은 장수들을 거느려 성을 쳐부수고, 도망가는 무리를 찾아내 전부 죽였다.

"우리 동족이 아닌 것이 섞여 갑인의 변을 불러들였다. 칼과 방패가 바다를 뒤덮고 간과 뇌는 땅을 가렸으니 말하면 목이 멘다."

이는 최영의 출정군과 목호세력의 전투가 있은 지 40여년 뒤에 제주사람들로부터 직접 목격담을 들은 소감문의 일부이다. 조선조 1417년(태종 17)부터 1420년(세종 2)까지 제주목 판관으로 부임했던 하담이 기록한 것인데, 당시의 전투가 얼마나 치열했었는지를 짐작케 한다.

dCollection @ jeju

그렇게 최영이 출정군을 거느려 명월포에 닿았던 1374년(공민왕 23) 8월 28일부터 평정을 마치고 제주를 떠난 9월 23일까지 25일 동안 벌어진 총력전으로 목호세력은 영향력을 상실하게 되었고, 제주사람들은 커다란 희생을 치러야 했다. 이로써 몽골의 제주지배 100년 역사는 종지부를 찍게 된다.

이 무렵 명나라는 고려에게 철령 이북의 땅을 다시 반납하라는 억지를 부리고 있었다. 몽골이 강제로 점거했었던 것을 공민왕이 회복했는데, 이전에 원나라 땅이었던 지역은 모두 명나라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나선 것이다.

최영은 명나라의 말도 안 되는 요구에 반발하며 요동정벌을 주장했고, 이성계는 최영의 주장에 반대했다. 최영을 의지하고 있던 우왕은 최영의 손을 들어주어 1388년(우왕 14)에 요동정벌이 진행된다.

그런데 최영이 전쟁지휘와 감독을 위해 서경[평양]으로 나아가자 우왕도 따라 나선다. 그리고 요동 지역의 전장으로 나가려는 최영을 적극적으로 만류하게 된다. 선왕인 공민왕이 시해당한 것은 최영이 제주목호를 토벌하러 제주로 갔기 때문이며, 최영과 하루라도 떨어져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최영은 할 수 없이 우왕과 함께 서경에 남고 이성계에게 군대를 내주어 요동정벌 길에 나서도록 하였다.

북쪽으로 가던 이성계는 위화도에서 장마를 만나 섬에 갇히게 되고 군대를 전진시킬 수 없게 되자 고려조정에 여러 차례 회군 의사를 보낸다. 그러나 우왕과 최영은 이성계의 회군을 허락하지 않았다. 애초에 원치 않는 전쟁 길에 올랐던 이성계는 왕명을 거역하고 군대를 돌리는 '위화도 회군'을 단행하게 되는데, 이후 이성계 세력은 최영을 요동정벌의 주모자로 몰아세워 제거하고 정국구도를 이성계 중심으로 이끌어내어 마침내 조선을 건국하게 된 것이다.

결국 제주목호의 반기가 뒷날 고려멸망과 조선건국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위화도회군을 가능케 하는 기회를 불러오게 된 셈이다. 이어 제주는 조선시대를 맞게 된다.

고려 말부터 날이 갈수록 몽골의 잔존을 배척하고, 더 나아가 그들과 더불어 살았던 흔적 자체도 부정해갔던 제주는 조선시대 들어 몽골과의 만남에서 비롯된 현상들이 빠르게 사라져 갔다.

조선 초기까지 원을 선향으로 삼은 성씨 그리고 명이 유배 보냈던 원 왕족과

dCollection @ jeju

후예들의 성씨를 지닌 주민들이 상당수 거주했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이들의 계보를 추적할 수 없게 된다. 몽골의 후원으로 위용을 자랑하며 조선 초기만 해도 280명이나 되는 노비가 소속되어 있을 만큼 큰 사찰이었던 법화사도 날이 갈수록 축소되고 허물어져 초가만이 남게 된다.

몽골과의 만남이 남긴 흔적을 떨쳐버리려는 경향은 그 후예들에 대한 중앙정부의 탄압과 더불어, 한족을 중국지배의 정통인 화로 간주하고 다른 종족은 오랑캐로 보는 화이론이 확산이 되었던 시대적 상황과도 맞물려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몽골과의 만남에서 비롯된 우마사육 규모의 확대와 아울러 몽골족 '목호'와 제주사람들의 교류를 통해 얻은 우마사육방식 경험은 조선시대에도 계속 이어져 제주는 조선 최대의 국립목장이자 '말의 고장'으로서의 명성을 누리게 된다.

그림 8. 탐라순력도 (공마봉진)

dCollection @ jeju

이 시기를 대표하는 역사는 국가에 대다수의 말을 기증해 '헌마공신'의 칭송을 받으며 대대로 부와 명예를 누렸던 김만일 일가의 이야기로 전해진다.

100여 년 동안 몽골족과 제주사람들이 직접적이고 일상적인 교류를 통해 흡수되고 축적된 생활문화 역시 제주문화로 동화되며 이어져 오늘날까지 그 흔적을 남기고 있다.[9]

9) 국립 제주 박물관, 제주의 역사와 문화, 통천문화사, 2001, p.148.

Collection @ jeju

3. 제주의 몽골 유적

다음의 제주 몽골유적은 몽골의 세력이 제주에 토착세력으로써 남아있었던 100여 년 동안에 현제 제주에 가장 대표적이고, 현재까지 남아있는 유적을 6가지를 선택하여 조사, 연구해본 내용이다.

각 연구대상의 시대별 연표는 다음과 같다.

표 1. 연구 대상 시대별 연표

연도	연구대상	비고
1269년 (원종10년)부터 1279년 (충렬왕5년)	법화사	3장 4절
1270년 (원종11년)	환해장성	3장 2절
1271년 (원종12년)	항목유적지, 항파두리성	3장 3절
1276년 (충렬왕2년)	제주마 방목지	3장 1절
1300년 (충렬왕26년)	원당사지 오층석탑	3장 5절
1834년 (순조34년)	열녀정씨지비, 유수암리 산새미오름 방묘	3장 6절

3.1 제주마 방목지, 제주 목마장 발상지

제주마는 평균키가 116㎝ 정도인 중간 체구의 말이다. 건강한 체질이어서 병에 대한 저항력과 생존력이 강하다. 특히, 발굽의 질은 세밀하고 견고하여 날카로운 암석이 많은 제주도의 중산간 지형에도 잘 견딜 수 있는 특성을 지녔다. 성격 또한 온순하고 끈질기기까지 해서 하루 32㎞씩 22일 동안 연이어 다녀도 잘 견딘다. 제주 재래마를 지금은 '제주마'라는 이름으로 통일해 부르고 있지만, 옛날에

dCollection @ jeju

는 제주마는 물론이고 탐라마, 제마, 토마, 국마, 조랑말 등으로 다양하게 불렸다.

제주에 언제부터 말이 살고 있었는지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기원전1세기부터 기원후 5세기까지 한림읍 월령리 한들굴의 집자리 유적에서 말의 뼈 발굴되었다. 이런 사실로 미루어 볼 때에 기원전 1세기부터 5세기의 선사시대 때부터 이미 말을 기르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 당시에 기르던 말이 과하마로 추정해보는데, 이 과하마는 말의 체구와 키가 너무 작아서 과일나무 아래를 지나다닐 수 있을 만큼 작아서 '과하마'라고 불리던 말 이였다. 이런 과하마는 고구려, 신라, 백제를 비롯하여 부여까지 기원전 1세기부터 기원후인 7세기까지 널리 퍼져 사육되어 길러지던 말이다. 이러한 소형의 과하마는 한반도 전체로 전파될 때쯤, 중국의 북동방면에 이민족인 숙신과, 한반도 북부에 퉁구스계의 민족 말갈족 등이 과하마보다는 체구와 속도가 빠른 중형의 양마를 들여왔다. 또한, 흉노, 거란, 여진등이 기르던 중, 대형마들 또한 한반도로 들어오게 되었다. 그래서 고려시대에는 외래종인 호마와 국산종인 향마 이 두마종이 대표하는 마종이었다. 이러한 국산 재래마인 향마는 과하마의 개량종 일 것으로 보고 있다.

향마는 국산에서만 산출되기 때문에 마치 노세와 같은 품질이여서 말의 품질을 기대하기가 어려웠으며, 호마는 향마가 백 마리라면 호마는 한, 두 마리 수준에 미치지 않아 종자개량에 어려움을 『고려사』에서 담고 있다. 하지만 1073년, '탐라가 문종27년에 명마를 중앙에 바쳤다' 라는 기록이 나오는데 이때 이미 제주에 호마가 들어와 번식을 하였다. 그러던 중에 몽골에 지배를 받던 시기에 호마계열의 몽골말과 서역마가 상당히 증가하였으며, 이런 마종들을 교접하여, 다양한 품종과 여러 크기의 말들이 등장한다.

한반도 육지부에는 소형의 과하마가 전래된 이후 북방 유목민인 숙신·말갈·동옥저 등을 통해 마종이 확실치 않은 중형의 양마가 들어왔으며, 그런가 하면 흉노·거란·여진 등을 통해 호마라 부르는 대형·중형의 마종도 계속 들어왔다. 그래서 고려 때는 외래종인 호마와 재래종인 향마라는 두 마종이 있었다. 향마는 과하마이거나 과하마 개량종이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고려사』에 "탐라가 문종 27년(1073)에 명마를 중앙에 바쳤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그때 이미 제주에도 호마가 들어와 있었던 것이다. 그러다 몽골 지배기 때 호마계통의 몽골말과 서역마가 본격적으로 들어왔고 번식하게 된다. 그로인해

dCollection @ jeju

제주에는 대형·중형의 몽골말과 서역마가 상당히 불어났으며, 그 말들과 종래의 말이 교접하여, 약간 큰말이 생겨나는 등 다양한 품종과 크기의 말들이 있었다.

몽골에 인하여서 제주에 말이 수가 많이 불어난 이후에는 말을 도외 밖으로 반출만 있었지 새로이 들여오는 일은 없었다. 몽골은 말을 거세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잡으로 인해 시간이 많이 흐르면서 호마는 자연히 사라지고, 과거의 다양했던 품종의 말은 없고, 외소한 작은 말들만 남게 되었다.

결국 지금의 제주마는 5세기경 이전부터 제주에 있었던 과하마가 고려시대 들어온 몽골말과 서역마 등의 호마와 교접해 생겨난 혼혈마종인 것이다. 제주 말의 산출은 고려전기 이전부터 시작됐지만, 제주를 '말의 고장'이라 일컫게 한 것은 몽골과의 만남 이후 본격화 되었고 그것이 조선시대와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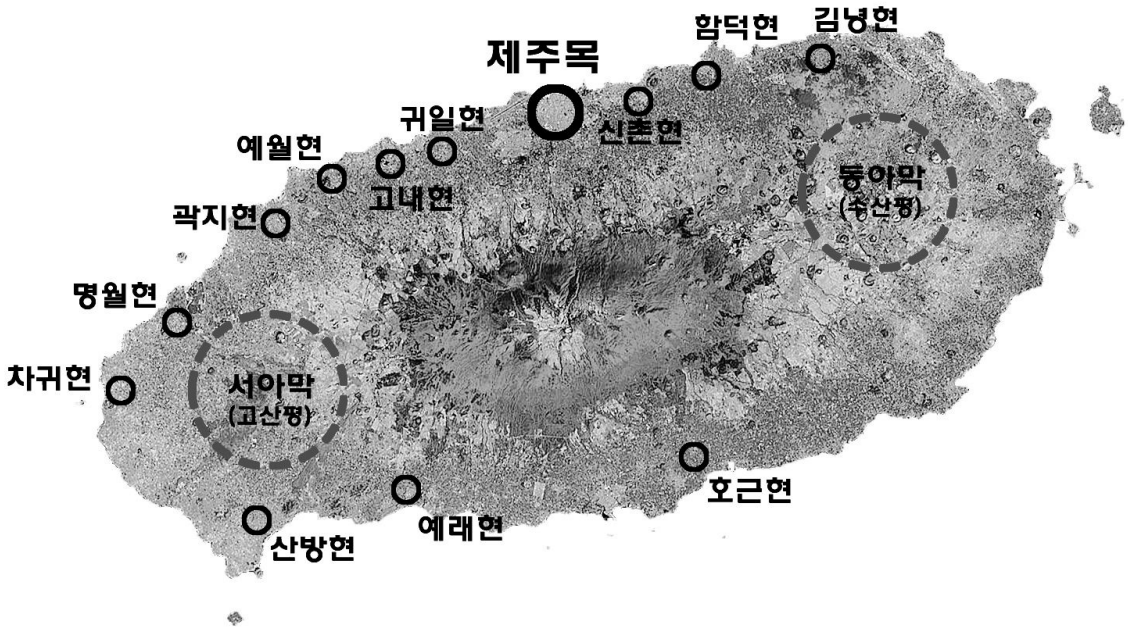


그림 9. 서아막과 동아막

있는 것이다.

말은 모색에 따라 제주사람들이 구분해 불렀던 이름들이 참 다양하여 흥미롭다. 그 이름들을 비롯하여 말 관련 어휘들에서도 몽골의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다.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에, 마을에서는 '큰물메'라 불리는 대수산봉이라는 오름

dCollection @ jeju

이 있다. 이 오름을 중심으로 펼쳐진 광활한 지대가 바로 수산평이다. 충렬왕 2년인 1276년, 당시 탐라 관부의 최고책임자인 '다루가치'로 부임해온 탑랄적이 몽골에서 몽골말 160마리를 이곳으로 가지고와 방목하여, 기르면서 시작된 제주 목마장의 발상지이다. 다음해에 목마장은 서쪽의 한경면 고산리 일대로 확대된다. 이들 목마장에는 말뿐만 아니라 낙타, 소, 양, 나귀, 고라니 등도 함께 놓아길렀다고 한다. 말이 특히 잘 번식되자 몽골에서는 계속 말을 들여왔다. 충렬왕 26년(1300년)에는 몽골의 황태후 마구간 말도 방목했다는 기록이 나온다. 이때 탐라 목마장은 동·서의 아막으로 일컬어진다. 이때쯤에 이미 몽골의 14개 국립목장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었다.

dCollection @ jeju

3.2 환해장성

타자들은 환해장성을 '해안성담', '고장성', '장성', '제주의 만리장성' 등등, 여러 가지의 이름으로 부른다. '환해장성'은 말 그대로 '해안을 둘러쌓은 성담'이라는 뜻 이다. '환해장성'이라는 명칭은 『탐라기년』(김석익, 1918년 편찬)에 의해 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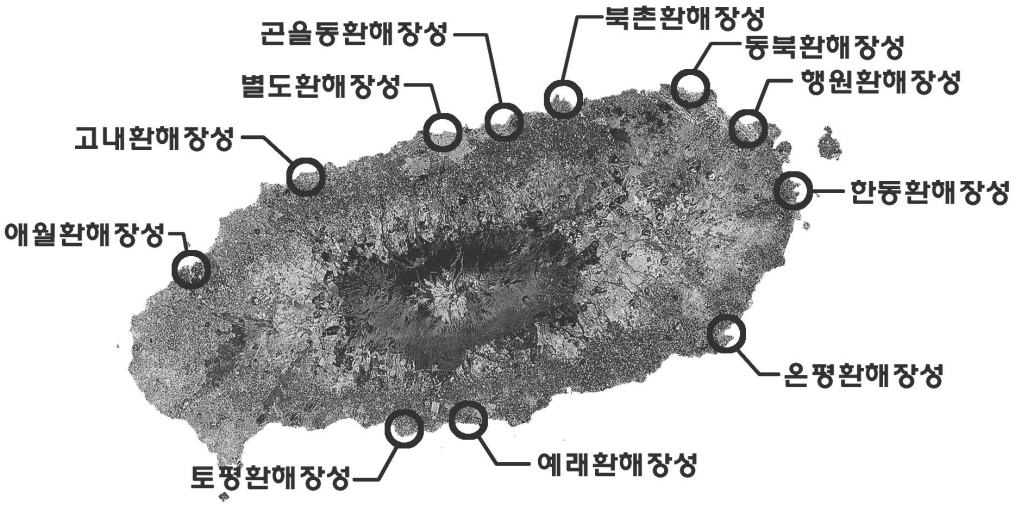


그림 10. 제주도 환해장성 위치도

음 등장한다. 제주해안을 길게 둘러친 장성이라 해서 마치 중국의 만리장성을 보는 듯 하다.[10]

환해장성이 처음 쌓아진 때는 1270년, 고려의 개경정부에서 보낸 관군에 의해 쌓여지기 시작하였다. 당시 진도를 거점으로 삼아 대몽항쟁을 벌이고 있는 삼별초가 제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쌓았던 것이다. 그때 주로 쌓여진 것은 지금의 화북에 자리 잡고 있는 곤을동 환해장성과 별도환해장성으로 추측된다.[11] 같은 해 제주로 들어와 고려관군을 물리친 삼별초 역시 환해장성을 계속 쌓았고, 이때 환해장성의 용도는 고려군과 몽골군의 공격에 대비하는 것으로 바뀌게 된다. 이때는 해안선을 따라서 연속적으로 쌓은 것이 아니라 여·몽골군이 상륙하기 쉬운 곳과 경계가 취약한곳을 골라 환해장성을 쌓아 올렸으며, 가장 대표적인 곳이 애월 환해장성이다.[12]

10) 제주문화예술재단, 화산섬, 제주 문화 탐방, 제주특별자치도, 2009, p.390.
11) 제주문화예술재단, 화산섬, 제주 문화 탐방, 제주특별자치도, 2009, pp.390-391.

dCollection @ jej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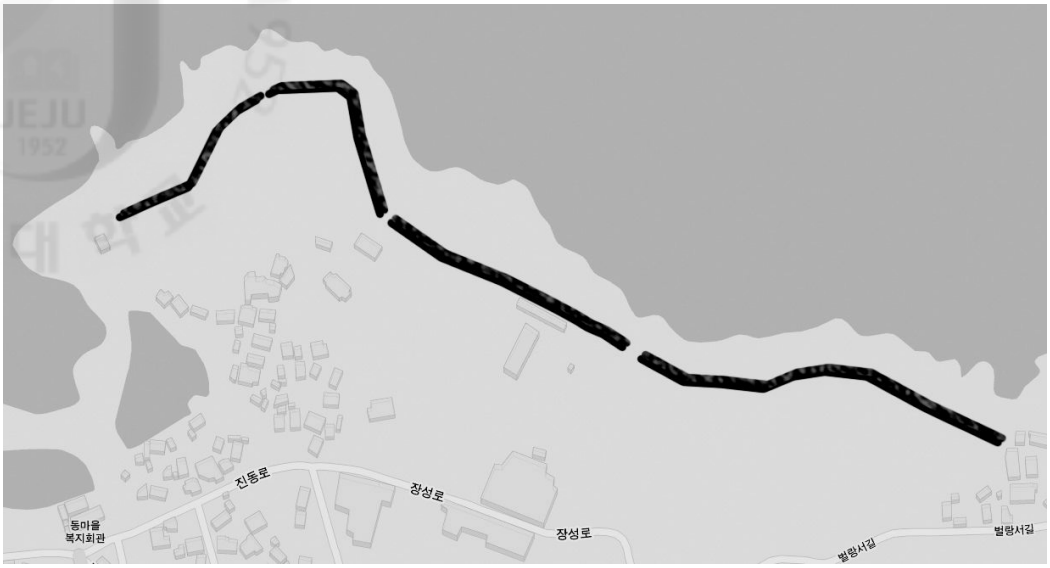


그림 11. 별도 환해장성 배치 및 위치

조선시대 들어서서도 환해장성은 계속 보수되거나 신축되었다. 이때는 왜구 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낯선 이양선의 출몰이 잦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보수와 신축을 하였다.

이렇듯 환해장성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경계의 대상을 달리하면서 축조됐지만, 환해장성을 쌓기 위해 동원된 인력들은 늘 제주인들 이었다. 결국 환해장성은 제주가 겪어야 했던 기구한 역사에 맞물린 제주인들의 한이 깃든 유적인 것이다.

환해장성은 해안에서 파도에 씻기고 구르며 닳아진 자연석을 크기별로 적당하게 분류하여 쌓았다. 그 형태 또한 일정하지 않다. 높이, 두께, 경사도 또한 다양하다. 더불어 해안가 밭 돌담이나 바닷물 범람방지용 돌담 등과 구별이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 아직도 열아홉 개 마을 해안지대에서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현재 열 곳의 환해장성이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에서도, 애월, 곤을, 별도이 세 곳을 고려시대부터 쌓아졌다고 보는 환해장성이다.[13]

곤을동 환해장성은 화북 해안에 140m 정도의 길이로 남아있다. 높이는 3~4m 정도 된다. 적당히 닳아진 현무암들이 불규칙하면서도 자연스럽게 쌓아진 채 수

12) 이영권, 제주 역사 기행, 한겨레신문사, 2004, pp.65-66.
13) 이영권, 제주 역사 기행, 한겨레신문사, 2004, p.66.

dCollection @ jeju

그림 12. 곤을동 환해장성 배치 및 위치

백 년의 세월 저편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다.

별도환해장성은 화북마을 해안의 구릉 지형을 이용해 쌓아졌는데, 크고 작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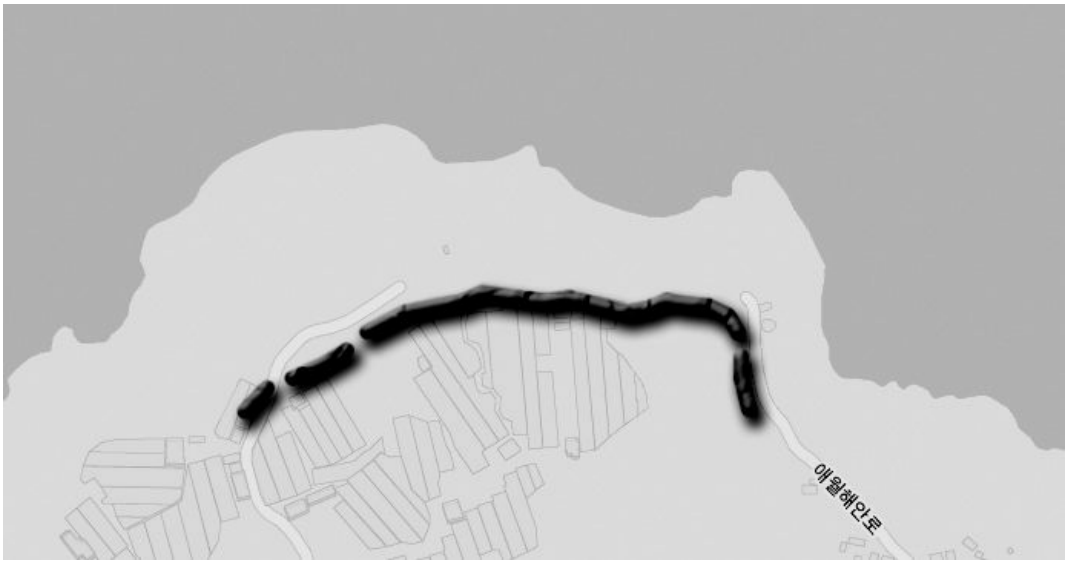


그림 13. 애월 환해장성 배치 및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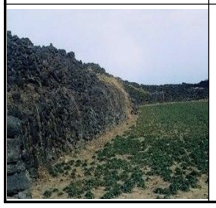
자연석들이 빼곡하게 성담을 이루고 있다. 620m 정도가 남아있고 높이는 2m를 조금 넘는다.

dCollection @ jeju

애월 환해장성은 360m 정도의 길이가 남아있고, 현재 성의 높이가 2.5m에서 5m에 이르는 부분도 있다. 도내의 환해장성 가운데에 가장 높은 성담인 것이다. 애월 환해장성이 고려시대부터 쌓여졌던 것은 제주에 들어온 삼별초가 근거지로 삼았던 항파두리성이 애월의 경계점 이였기 때문이다.

현재 남아있는 애월 환해장성은 과거의 위상과 아픔보다 많이 무너져 내리기도 하였지만, 성담의 가장자리를 넓고 높게 잡고 그 안에다 잡석들을 두껍게 채워놓은 환해장성의 축성방법을 알아볼 수 있다.

표 2 . 환해장성 비교

사 진	이 름	위 치	길이(m)	높이(m)	특 징
	곤을동 환해 장성	제주시 화북1동 4363번지 일대	140	3~4	현무암을 불규칙적으로 쌓아 축성
	별도 환해 장성	제주시 화북1동 1533-1번지 일대	620	2	크고 작은 자연석들이 빼곡하게 성담을 이룸
	애월 환해 장성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 1957-1 일대	360	2.5~5	도내 환해장성 가운데 가장 높은 성담

dCollection @ jeju

3.3 제주항파두리 항몽유적지, 항파두리성 내외 유적

1271년인 원종 12년에 고려의 마지막 항몽세력이였던 삼별초가 제주에 들어와 항몽의 최고 주요 거점지로 자리 잡았던 곳이 바로 항파두리성이다.[14)]

1170년 (의종24) 무신 정중부의 난 이후에 무신들 사이에 반복되는 정변은 사회구조를 불안하게 만들었으며, 권신들은 이러한 무질서를 잡기 위하서 야별초를 조직하게 된다. 야별초의 군사수가 많아지자 야별초를 다시 좌별초, 우별초로 나누었는데. 여기에 1231년 (고종18)몽골군에게 포로로 잡혀있다 탈출해온 신의군을 모아 삼별초를 조직하여 국내 치안 등을 담당하는 정예군으로 활동하였다.

이후에 고려는 1269년(고종 46)까지 28년 동안에 일곱 차례의 전쟁으로 심각하게 피해를 입었으며, 그 피해가 심각해지자 1249년 4월에 태자를 몽골에 천화사로 보내어 의논하게 하였다. 태자가 몽골에 간지 얼마 후 고종이 죽자, 이듬 해 3월에 태자가 귀국하여 왕위에 오르고 원종이 된다. 시간이 흐르면서 문신들과 함께 원종은 몽골과의 화의에 뜻이 있었고, 결국 임연에 의해 폐위하게 된다. 몽골의 쿠빌라이는 이것을 좋은 기회로 삼아, 고려에 압력을 가하여서 원종을 복귀시켰고, 원종은 중국의 연경으로 가서 사례를 하고, 평화를 위하여 몽골의 왕실의과 혼인을 맺는 일, 강화도에서 다시 조정을 옮기는 일, 권신들을 제거하는 일을 약속하고서야 다시 귀국 할 수 있었다. 원종은 귀국하여 개성에 머물면서, 강화도의 신하들에게 나올 것을 명하였고, 이에 대해 삼별초 군인들은 불복하여 항몽 태세를 취하게 된다.[15)]

삼별초는 1270년 (원종11)에 천 여척의 배로 남하 하였다. 개성으로 옮긴 고려 조정에서는 김방경을 추토사로 임명하고, 몽골과 함께 삼별초를 추격하였다. 삼별초가 영흥도에 정박하고 있는 것을 보고 김방경이 공격하려 하였으나, 몽골의 송만호가 두려워하여 이를 말리게 된다.

삼별초는 다시 8월에 진도에 도착하여 이곳에서 용장성을 쌓게 된다.[16)]

---

14) 이영권, 제주 역사 기행, 한겨레신문사, 2004, p.63.
15) 국립 제주 박물관, 제주의 역사와 문화, 통천문화사, 2001, pp.111-113.
16) 국립 제주 박물관, 제주의 역사와 문화, 통천문화사, 2001, pp.111-113.

dCollection @ jeju

몽골의 쿠빌라이는 삼별초로 인해 일본 정벌의 계획에 문제가 생기자 고려와 몽골의 연합군을 대동하여 진도로 총공격을 하러 가게 된다. 이러한 총공격에 1271년, 진도 용장성은 함락 하게 되고, 김통정 장군은 남은 군사들과 함께 제주로 들어와 항파두리성을 축조하였다.[17]

그림 14. 항몽순의비 설치 전경

성이 자리한 마을 이름인 '고성리'도 항파두리성 때문에 생겨났다. 성 이름 '항파두'의 기원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다. 그 중에서 성의 지형에서 유추한 이름이라는 얘기가 있다. 항[항아리]의 가장자리와 같이 타원형으로 쌓아져 있기 때문에 이름 붙었다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은 제주삼별초를 진압한 장군의 이름인 '홍다구'에서 비롯됐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또 다른 한 가지는 당시 몽골은 큰 공을 세웠던 장군에게 '큰 용사'라는 뜻인 '바투' 라는 호칭을 주었는데 홍다구가 바로 그 바투의 칭호를 받게 되었어, 항파두리성은 '홍바투'의 전공을 기리는 '홍바투성'을 뜻한다는 이야기다.[18]

17) 국립 제주 박물관, 제주의 역사와 문화, 통천문화사, 2001, pp.111-113.

dCollection @ jeju

그림 15. 항파두리성

항파두리성이 자리한 곳은 해안에서 조금 올라간 지역으로 바다가 눈앞에 보이고 자연적으로 형성된 가파른 입지에 동서로 낀 깊은 계곡 형태의 천연적인 요새를 이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교적 풍부한 식수와 양질의 토양은 성 축조와 기능에 적합한 조건들을 잘 갖추고 있다.

제주는 화산섬이어서 특히 흙을 구하기 어려웠는데, 항파두리성 일대에는 기와를 구워낼 만큼 질 좋은 진흙들이 있었다. 한라산에서 나무들을 잘라네 건축 자재로 이용할 수 있었고, 멧돼지며 사슴, 노루 등의 산짐승들을 사냥할 수 있었다. 가까운 해변에는 크고 작은 포구들이 형성되어 있어 군사용으로 쉽게 사용할 수 있었으며, 당시 제주도 안에서 가장 규모가 큰 마을들과도 가까워 필요한 물자를 쉽게 구할 수 있었다.

항파두리성은 외성과 내성의 이중성으로 쌓여졌다. 동서남북에는 원래 성문이

18) 이영권, 제주 역사 기행, 한겨레신문사, 2004, pp.69-71.

dCollection @ jeju

있었다고 한다.

길이가 대략 6㎞정도의 외성은 흙으로 만들어진 토성인데, 토층과 석괴층을 교대해가며 10여 층으로 쌓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내성은 외성 안 중심부에 돌로 쌓은 둘레 750m의 정사각형 석성으로 구성되었던 걸로 알려져 왔었는데, 2010년 10월 새롭게 시굴조사를 벌인 결과 석성이 아니라 토성이었을 가능성이 제시되었다. 발굴단에 따르면 내성은 점질토과 사질토를 자갈과 교대로 섞어 쌓았으며, 하부 폭은 최소 4m 쯤 되고, 전체 연장길이는 760m에 이르는 사각 형태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남아 있는 것은 토성인 외성의 일부 부분이다.[19]

삼별초는 제주에 들어온 뒤 1년여 동안 이 항파두리성을 비롯한 방어시설구축에 주력하였다. 모자란 인력을 인근주민들로 강제로 동원하였다.

항파두리성은 자연적인 지형을 최대한 활용하였다. 성의 동쪽은 고성천, 서쪽은 소왕천이라는 하천이 깊은 계곡을 형성하고 있어 외성인 토축만으로도 대단히 견고한 요충지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계곡들은 항파두리성의 자연적인 해자가 되었다. 외성은 말을 타고 달릴 수 있는 고속 군사도로로 활용될 정도의 규모였다고 한다.

건물이 있었던 성 안에서는 당초무늬가 새겨져 있는 헌평와 및 '고내촌…신축이월…'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기와 파편, 청자 파편, 불상 등이 확인되어 유적의 중요성을 입증해주고 있다. 내성과 외성 외에도 항파두리성 북측의 구시물과 옹성물 같은 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외성 밖으로 보조 성을 구축했었다고 한다.

19) 제주문화예술재단, 화산섬, 제주 문화재 탐방, 제주특별자치도, 2009, pp.34-35

dCollection @ jeju

3.4 법화사

제주에 불교가 언제부터 들어왔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고려시대에 이르러서 부터는 제법 널리 퍼져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수정사, 묘련사, 서천암, 보문사, 법화사, 원당사 등의 사찰이 고려시대 때 제주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법화사는 수정사, 원당사와 함께 고려후기 제주지방의 대표적인 사찰이었다. 법화사는 비보사찰로 1408년(태종8) 이전까지만 해도 사찰에 노비들이 280명에 이르는, 제주도에서 가장 큰 사찰이었다.[20] 이러한 사찰 가운데에 몽골과 관련이 있는 사찰은 법화사와 원당사이다. 특히 법화사는 몽골이 매우 공을 들인 사찰이었다.

그림 16. 현 법화사 내 구화루와 구품연지

법화사는 청해진의 장보고가 만들었다는 말이 있다. 장보고가 환도 할 때에 청해진에 법화사를 만들고 중국 산둥반도에 법화원을 만든 일이 있으므로, 일본과 중국을 잇는 뱃길의 요충지로서 제주에도 법화사를 만들었을 것이라는 주장

20) 제주문화 예술재단, 화산섬, 제주문화탐방, 제주특별자치도, 2009, p.332

dCollection @ jeju

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근거는 희박하다. 법화사가 언제 창건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발굴조사 때 출토된 유물로 볼 때에 1269년(원종 10)부터 1279년(충렬왕 5) 사이에 중창된 것을 알 수 있다. 1982년부터 1997년까지 8차에 걸쳐서 법화사지에 발굴조사가 이뤄졌다.[21]

발굴 조사 때 '지원육년기사시중창'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기와가 나왔는데, '지원'은 몽골의 연호이고, 지원 6년은 서기로 하면 1269년이다. 곧 법화사는 그 이전부터 있었던 사찰 이였는데 1269년 (원종10)에 다시 짓기 시작해서 1279년 (충렬왕 5)에 끝마쳤다는 이야기 이다.[22]

그림 17. 법화사지 출토 운용문 막새

그림 18. 옛 법화사지 대행 주초석

법화사의 막세를 보면 막세 외측에 용과 봉황 무늬가 새겨져 있다. 이 막새들은 고려시대 때 왕실의 건축물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었던 무늬이다. 이런 막세는 몽골의 콩두미 궁전에서 발굴된 막새와 비슷한 유형으로 미루어 몽골에서 들어온 것으로 추정된다. 고급품질의 청자들과 청동등잔 등도 출토 되었고, 대형 주춧돌과 대형 건물터 역시 확인 되었다. 기록에 따르면 몽골의 '양공'이 만든 미타삼존동불도 안치되어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만으로도 당시 중창된 법화사가 얼마나 사회적 위치의 사찰이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으며, 인화분청, 분청사기류, 조선청자 등의 유물등도 출토되어 조선초기까지도 매우 중요한 사찰이었음을

21) 국립 제주 박물관, 제주의 역사와 문화, 통천문화사, 2001, pp.119-121.
22) 이영권, 제주 역사 기행, 한겨레신문사, 2004, p.63.

dCollection @ jeju

말해주고 있다.

이를 통해 고려시대 건물지 6개소와 조선시대 건물지 4개소, 초가 관련 시설, 계단 시설, 폐와무지, 화단, 건물 사이의 보도 등이 확인되었고 13~15세기경의 유물들 또한 출토되었다.

법화사지는 크게 건물지와 연못지 두 구역으로 나뉘는데, 그 중에 건물지와 기타 시설물의 중복관계와 출토된 유물들로 미루어 볼 때에 크게 네 차례에 걸쳐 변화를 겪은 것으로 보인다. 1차시기(?~1269년경)는 기본적인 사찰건물이 들어서는 1269년 이전 시기이다. 2차시기(1269~1400년경)는 몽골 관련 특수건물의 존속시기이자 법화사의 전성기이며, 3차시기(1400~1600년경)는 금당지, 법당, 승방지

그림 19. 법화사지 발굴 현장

와 계단, 담장지가 존재했던 시기이고, 4차시기(1600년경~)는 과거에 위용을 자랑하던 사찰건물이 서서히 사라져버리고 초가만 남아 그 명맥을 유지하던 때로 볼 수 있다.[23]

연지 구역은 1차시기부터 이미 자연적인 연못 형태가 자리 잡고 있었는데, 2차시기에 와서 사찰건물과 어울리게 조성되었으나 4차 시기에는 그 기능이 없어져 버린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조선왕조실록』에는 명나라가 법화사에 있는 미타삼존 불상을 옮겨간 사건

23) 제주문화 예술재단, 화산섬, 제주문화탐방, 제주특별자치도, 2009, pp.332-333.

dCollection @ jeju

과 더불어서 1408년 (태종 8)에 법화사 소속된 노비 280명을 30명으로 감축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13세기 중엽에서부터 14세기 말까지 몽골의 후원을 받아 제주에서 가장 화려한 사찰건축이 자리 잡고 있었던 옛 법화사의 흔적은, 복원된 대웅전 주변에 남아 있다. 옛 법화사 건물에 사용했을 기와조각이며 석물들이 한데 모아져 있다. 줄줄이 놓여 있는 대형초석들은 과거 법화사의 웅장하고 화려했던 시절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24]

법화사 중창이 시작된 1269년은 몽골이 제주를 직할령으로 삼기 4년 전 이야기이며, 마무리된 1279년은 직할령으로 삼고 5년이 지난 시점이다. 중창시기와 발굴유물로 미루어 볼 때 중창은 고려왕실에 의해 시작됐지만 본격적인 추진과 마무리는 몽골이 주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법화사의 관음신앙은 고려 왕실의 종교였다. 고려 왕실은 국가 평화와 왕권강화를 위해 몽골 황제의 환심을 사고자 법화사 중창을 계획하고 시작했지만 원종 폐립과 복위, 삼별초 대몽항쟁 등 급격한 정세변동으로 추진이 지지부진해지고 말았다. 그것을 몽골이 이어받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 것이다.

몽골은 이미 1269년에 탐라의 성주를 몽골에 입조케 했으며, 1268년 무렵에는 일본 정벌에 필요한 선박 1천 척 중 따로 100척을 탐라에서 건조하라고 명령하였고, 주변해로를 탐사하기도 했다. 이것은 이미 몽골이 탐라를 남송과 일본 정벌을 위한 전초기지로서의 지리적 가치로 탐라를 매우 중시하고 있었다는 말이 된다. 또한 몽골 황실 역시 관음신앙을 가지고고 있었기 때문에 제주에 파견한 자국민에게 종교적 안식처를 마련해주려는 목적도 있었을 것이고, 제주를 더욱 효과적으로 지배하고 경영하려는 의도도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법화사가 남송과 일본을 잇는 바닷길의 요충지인 제주서남부 해안지대로부터 가까운 자리에 자리 잡았다는 점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25]

중창 이후에 법화사는 몽골 황실의 원찰이었으며, 제주에 파견되어 거주했던 상당수 몽골족이 찾는 종교적인 안식처로 자리 잡았다.

---

24) 제주문화 예술재단, 화산섬, 제주문화탐방, 제주특별자치도, 2009, pp.332-333.
25) 이영권, 제주 역사 기행, 한겨레신문사, 2004, pp.91-97.

dCollection @ jeju

그림 20. 현 법화사와 대웅전

법화사는 제주가 한 때 고려에 환속됐던 1294년부터 1300년 사이에는 고려의 비보사찰로 지정된다. 고려 때 비보사찰은 국운융성과 왕실번영을 기원한다는 명분으로 국가적 차원의 각종 지원을 받았다. 비보사찰로서의 위상이 몽골지배로 인한 제주사회의 변화와 맞물리면서 법화사에는 몽골뿐만 아니라 그들과 혼인한 제주여성과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 그리고 토착주민들까지도 신앙생활을 위해 법화사를 찾았다. 상당히 높은 위상을 지닌 복합적인 사찰로 번성해 나아갔던 것이다.

사찰로서의 위상을 매개로 법화사는 몽골의 제주사회 지배를 뒷받침하는 관아의 기능도 담당했다. 몽골황제 순제가 1366년(공민왕 15) 무렵부터 탐라에 짓기 시작했다는 피난궁전 터도 법화사 경내였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26]

결국 법화사는 호국불교를 내세운 고려와 몽골의 국가적 입장을 중첩된 국제적 사찰로서의 위상을 지니고, 몽골이 지배했던 13세기 후반부터 100여 년간 종

26) 국립 제주 박물관, 제주의 역사와 문화, 통천문화사, 2001, pp.118-125.

dCollection @ jeju

교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으로도 제주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담당했다.

제주와 몽골의 만남에서 비롯된 법화사의 존재와 위상 역시 제주와 몽골의 교류가 직접적이며 일상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제주문화에 몽골의 요소를 배제할 수 없는 이유 가운데 하나이다.

하지만 이처럼 거대했던 법화사는 어느 새에 그 자취를 감춘다. 1530년 기록인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법화사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 하지만 이원진의 <탐라지>(1653)에서는 폐사되어 초가 암자 몇 칸만 남아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제주 원나라의 3대 사찰 중 원당사와 수정사가 여전히 <탐라지>에 남아 있는 반면 법화사는 이때 이미 자취를 감춘 것이다.

법화사가 다시 복원된 것은 1914년에 도월 선사가 다시 복원을 시작한다. 여기에는 이보다 몇 해 전인 1908년에 관음사를 창건한 비구니인 안봉려관의 도움이 컸다. 안봉려관은 200년 동안 단절되었던 제주 불교를 부흥시킨 스님이다. 하지만 이 조차도 1948년 4·3 사건이 발생하면서 법화사는 완전히 소실하기에 이른다.[27]

27) 이영권, 제주 역사 기행, 한겨레신문사, 2004, p.95.

Collection @ jeju

3.5 원당사지 오층석탑

일반적으로 고려시대 창건된 탐라의 3대 사찰로 법화사, 수정사, 원당사를 꼽는다. 이 중 원당사는 몽골제국의 마지막 황후인 기황후가 아들을 얻기 위해 세운 사찰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문제는 창건에 관한 기록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28]

법화사나 수정사가 <조선왕조실록>이나 <동국여지승람>, <충암록> 등의 자료를 통해 몽골과 관계있는 사찰임이 충분히 증명되고 있다. 하지만 원당사에 대해서는 이원진의 <탐라지>(1653)에서 '제주성 동쪽 20리에 있다' 라고만 기록되어 있을 뿐이고, 그 외에는 어떠한 관련 내용도 찾아볼 수가 없다. 단지 구전 하

그림 21. 원당사지 오층석탑 위치도

나로 지금까지 원나라 창건의 사찰이라는 지위를 얻어온 것이다.

옛 사람들에게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원당사는 몽골제국에 공녀로 끌려갔다가 황후자리까지 오른 고려출신의 기황후가 세웠다고 한다. 태자가 없어 고민하던 기황후에게 어느 날 승려가 비법을 알려주었다. 태자를 얻으려면 북두칠성의 명맥이 비치는 삼첩칠봉에 절을 세워 불공을 드려야 한다는 것이다. 기황후는 이 비법을 듣고 천하를 고루 고루 살려보다가 원당봉을 적지로 보고 공을 들였

28) 이영권, 제주 역사 기행, 한겨레신문사, 2004, p.99.

dCollection @ jeju

는데 이때, 황태자를 얻었다고 한다. 그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원당사를 창건토록 했다고 전해진다.

1333년 그녀 나이 14세 때의 일로, 이후 원나라로 건너가 마지막 황제 순제의 총애를 받아 제 2황후가 되었던 것이다. 1339년에 아들 아이시리다라를 낳고, 그 아들이 황태자로 봉해지자 그녀는 권력의 중심부로 다가섰다. 그리고 1년 후인 1340년에 제 2황후의 자리에 올랐으며, 그녀의 권력은 1368년 원나라가 망할 때까지 계속 되었다.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보면 원당사는 1333년에서 1339년 사이에 창건된 것으로 볼 수 있다.[29]

또한 원당사는 1653년 기록인 <탐라지>에 한 번 등장했다가 1702년 이형상의 기록에는 다시 언급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사찰 역시 17세기경에 폐사된 것으로 보여 진다.

하지만 이 사찰터에는 제주도 유일의 고려시대 석탑이 남아 있다 석탑이 전체적으로 고려후기 석탑의 축조양식을 연상케 하고, 원당사터 발굴조사 때 고려시대 건물지와 도자기 조각 들이 확인됐다고 한다.

원당사와 석탑이 기황후와 관련을 맺어 세워졌다는 이야기는 좀 과장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창건 시기는 몽골의 제주 자배기였고, 창건을 주도한 집단은 몽골족인 것으로 보고 있다.[30]

원당사지 오층석탑은 제주에서 흔히 보는 검은 현무암으로 만들어져서인지 소박하고 낯설지 않은 느낌이다. 현무암은 제주에서 가장 구하기 쉬운 돌인데, 현무암으로 만들어진 불탑은 세계에서 이 석탑이 유일하다. 그만큼 이 석탑은 제주의 토착성을 강하게 담은 독특한 문화유산이므로, 외부문화를 받아들이더라도 자신이 처한 자연환경과 상응하며 수용하고 정착시켜온 제주문화의 단면을 엿보게 한다.

또한 탑은 단층 기단위에 5층의 탑신부를 형성하고 정상에 상륜을 장식하고 있다. 각 층의 부분 양식은 고려시대의 조각 수법을 따르고 있다. 탑의 높이는 396㎝이며, 측면 너비 84㎝이나 1층의 기단과 5층의 옥신은 심하게 좁아져서 특

29) 이영권, 제주 역사 기행, 한겨레신문사, 2004, p.100.
30) 이영권, 제주 역사 기행, 한겨레신문사, 2004, pp.99-101.

dCollection @ jej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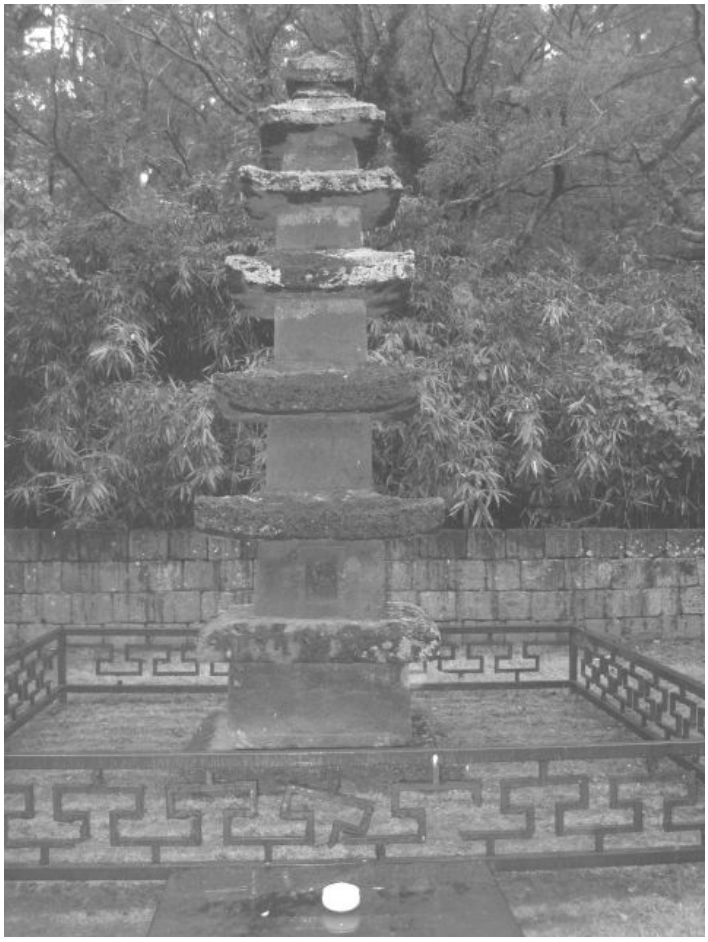


그림 22. 원당사지 오층석탑

이한 양상을 하고 있다. 그리고 각 층의 옥신이나 옥개는 돌 하나로 만들어 졌다.

옥신은 사각형에 어떠한 문양도 두지 않은 간략한 형식이며, 네 귀퉁이는 처마 끝만 살짝 올려 마무리하였다. 이처럼 옥신이나 옥개가 변화한 간략한 형식은 보기 드문 양식으로 확인되고 있다. 상륜부에는 최근에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옥개가 올려져 있다. 그런데 1988년에 상륜부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직경 9.2㎝, 높이 9.0㎝, 구멍 직경 2.7㎝의 보주 또는 용차로 추정되는 석재 유물이 발견된 바 있다.[31]

이 유물의 구멍에는 철물에 꼽혀 있었던 흔적이 있어 원래의 석탑의 상륜부에

31) 제주문화 예술재단, 화산섬, 제주문화탐방, 제주특별자치도, 2009, pp.20-21.

dCollection @ jeju

는 철제 찰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초층탑신 정면에는 홈이 파여 있는데, 이곳에 사리가 봉안되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상대석의 전면과 좌우 측면에는 연화문이 음각으로 되어 있다. 또한 상대갑석은 약간 볼록하여 시선을 위로 유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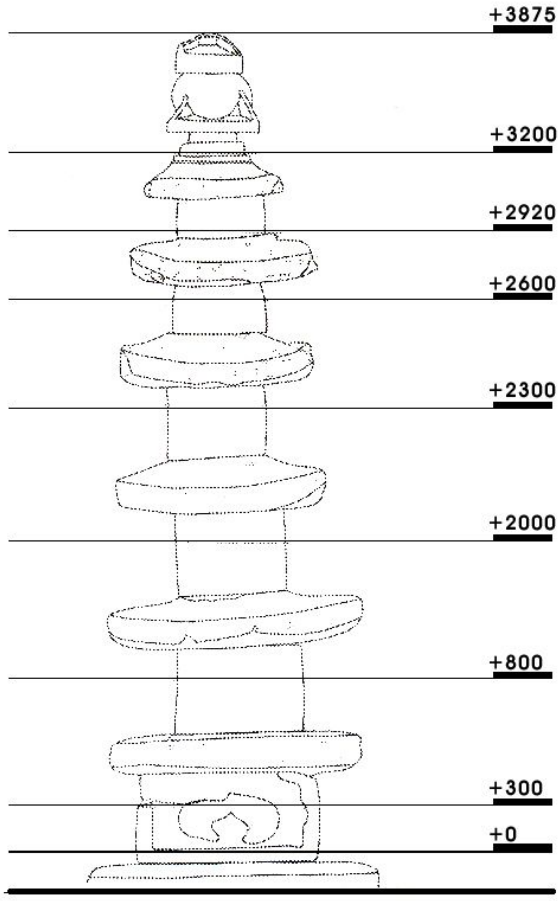


그림 23. 원당사지 오층석탑 입면도

dCollection @ jeju

3.6 열녀정씨지비, 유수암리 산새미오름방묘

1) 열녀정씨지비

이 비의 주인공인 정씨는 고려시대에 몽골출신의 목호와 혼인했던 제주여성이다. 그런데 그 남편이 1374년(공민왕 23) 일어난 목호의 반기와 그 평정의 와중에 죽고 만다. 당시 정씨의 나이는 스무 살이었고, 젊고 아름다운데다가 목호인 남편 사이에서도 자식도 없었다.

제주에 온 고려의 안무사 군관이 이를 탐내어 강제로 취하려 했지만 정씨는 죽기를 각오하고 군관을 물리쳤다고 한다. 이후에도 많은 유혹이 있었고 친족들 역시도 재혼을 권하였지만 끝내 뿌리치고 절개를 지키며, 혼자 살다가 70세에 세상을 떴다고 전해진다. 이 일이 알려지면서 정씨는 열녀로 칭송받게 된다.

이런, 열녀 정씨의 이야기는 몽골 지배기에 제주여성과 몽골인의 혼인이 제주사회에서는 일반적이었고,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졌음을 엿보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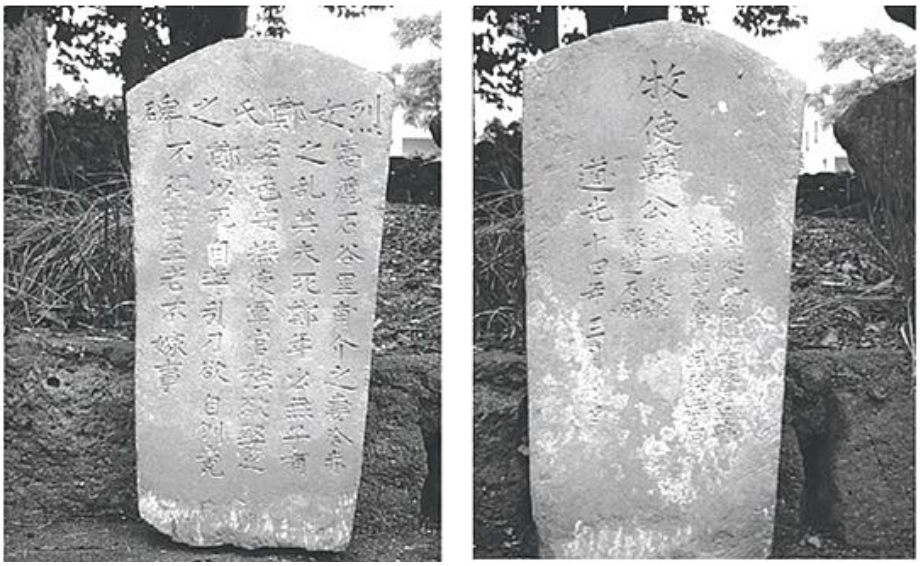


그림 24. 열녀정씨지비

dCollection @ jeju

지금의 정씨열녀비는 1834년(순조 34)에 세워졌는데, 원래 남원읍 속칭 '정비못'에 있었다고 한다. 정비못 이라는 이름도 이 비석에서 유래했다고 전해진다.

비문 번역 내용은 다음과 같다.

<비양> 고려 때 석곡리보개의 처는 합적[몽골의 관마 관리인]의 난에 그 남편이 죽었는데, 정은 나이가 어리고 자식이 없으면서 얼굴이 예뻤다. 안무사의 군관이 억지로 장가들려고 하였으나, 정은 죽기를 스스로 맹세하고 칼을 뽑아 자결하려고 하니 마침내 장가들지를 못하였고 늙도록 시집을 가지 않았다.

<비음> 목사 한공께서 특별히 뒷 양식을 내리면서 석비를 고쳐 만드셨다. 이르는 곳마다 보고 들으며 고적들을 중수하였으니, 그 은혜에 또한 끊이지 않도록 옷깃을 여미지 않을 수가 없다. 1834(순조 34)년 3월

dCollection @ jeju

2) 유수암리 산새미오름 방묘

그림 24. 유수암리 산새미오름 방묘

제주시 유수암리 산새미 오름 북동쪽에 자리하고 있는 방묘이다.

방묘는 넓은 판석을 사용하여 장방형으로 묘의 외곽을 석곽으로 돌려서 축조한 무덤으로 고려시대 말기에서부터 조선시대 초기까지의 무덤양식이다.

이 방묘의 석곽은 묘의 흙속에 파묻혀 20㎝정도만 지상에서 보이고, 봉분은 거의 평지처럼 납작해져 있다.

비석은 없지만 고려시대의 분묘형태이고 묘의 크기가 다른 묘들에 비하여 크다.

마을에서 오름 아랫부분에 있는 연못을 '금수못'이라고 부르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김수장군의 묘로 추정되고 있다.

이 묘의 주인으로 추정되는 김수는 문과 급제 출신으로 영암부사로 재직하던 중에 개경정부에 의해 제주로 파견된다. 그가 파견을 온 이유는 진도삼별초의 제주 진입을 막기 위해서였다. 뒤이어 파견된 고여림과 함께 밤낮으로 성을 쌓고, 병기를 수리하며 제주를 지켜 왔다고 한다. 그러나 삼별초의 이문경 부대가 다른

dCollection @ jeju

그림 25. 유수암리 산새미 오름방묘 위치도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산 124-1)

길로 이른 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송담천에서 전투를 벌이다 전사하고 말았다.

dCollection @ jeju

4. 제주 몽골유적의 건축적 가치와 의의

3장에서 연구대상을 분석한 결과 제주건축역사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법화사, 원당사지와 원당사지 오층석탑, 제주항파두리 항몽유적지 등이 건축적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어 그 의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4.1 법화사의 건축적 가치와 의의

원나라에서 경영했던 사찰 중의 하나인 법화사는 기록에 따르면 그 규모가 상당했을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 법화사지 터에서 발굴되는 유적만으로도 법화사의 중창이 법화사를 원찰로 삼으로는 원 황실의 주도 하에 실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법화사에서 출토된 운용문 암막새와 숫막새, 와당 등은 용과 봉황이 각인되어 있어 한강이남에서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고려왕실의 것보다 몽골의 유물과 비슷해 문화적 가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제주불교문화의 꽃을 피우게 했다.

13세기 중반 몽골은 이미 탐라에서 남송과 일본 정벌을 위한 준비를 해왔었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토대로 미루어 보면, 탐라는 원나라에게 정벌을 위한 전초기지로서 그 지정학적 가치가 상당했을 것이다.

또한 불교가 성행했던 당시 시대 상황에 따라 중창 이후 법화사는 세조의 원찰이자 원의 지방행정단위인 제주지역의 정기적인 전례불사가 열렸던 사찰이었다. 몽골족이 제주를 지배하는 100여 년 동안 법화사는 원 황실의 원찰 기능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적으로 제주에 거주하는 몽골족의 본거지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으며, 법화사 경내가 원 멸망 직전 황제 순제의 피난 궁터로 택해졌다는 것, 당시에 탐라에 거주하던 몽골족의 종교적 안식처 역할을 했다는 것 등을 미루어 볼 때 법화사가 몽골족 중심세력의 기반이었음을 반증한다.

따라서 법화사는 한국역사에서 원 간섭기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원 황실의 영향력 등을 실체적으로 확인시켜주며, 이후 명시대에 탐라의 형세를 살필 목적

Collection @ jeju

으로 법화사의 불상을 가져가려 했다는 기록으로 보아서도 제주의 지정학적 위치로 인한 역사적 상황과 더불어 역사경관측면에서 법화사의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2 원당사지와 원당사 오층석탑의 건축적 가치와 의의

원당사는 원제국의 마지막 황후인 기황후가 아들을 얻기 위해 세운 사찰로 알려져 있으며, 단지 구전 하나로 지금까지 원나라 지배 시기 창건 사찰이라는 지위를 얻어 왔었다.

원당사지와 관련된 제반 사실을 미루어 볼 때, 원당사가 기황후와 관련을 맺어 창건되었다는 구전은 과장되었다고 하더라도, 창건 시기는 고려후기에 해당하는 몽골의 제주 지배기였고, 창건의 주도집단은 몽골족이었다고 봄이 타당할 듯싶다. 몽골의 제주 지배기 때 원당사라는 사찰이 새로이 창건되었음은 법화사와 수정사의 중창과 아울러 그 만큼 불교가 제주사회에 널리 유포되어 있었고, 또한 보다 더 확산될 수 있는 토대도 마련되었음을 뜻하는 사실이다.

원당사는 조선시대 배불정책에 의하여 폐사되었지만, 5층 석탑만은 본래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기에 그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현재에는 '불탑사 5층 석탑'으로 불리나, 원당사가 폐사된 것으로 보았을 때 정확하게는 '원당사지 5층 석탑'이라고 불려야 할 것이며, 현무암이라는 재료의 사용과, 특이한 기단부의 구조, 첫 층 탑신의 감실, 각 층의 옥개석 형태로 보아 원나라 지배 시기인 고려 후기의 탑임을 가늠할 수 있고, 현존하는 현무암으로 된 유일한 석탑이라는 점과 제주토착문화가 외래문화와의 유입과 제주토착문화의 교류에 의한 제주문화의 형성의 일면을 보여주는 문화적 가치를 높이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dCollection @ jeju

4.3 제주 항파두리 항몽유적지의 건축적 가치와 의의

고려와 원의 전쟁에서 생겨난 삼별초의 주요 항몽거점으로 이용되었던 항파두리의 항파두성은 2년 반 정도의 길지 않은 기간 동안이었지만, 삼별초의 주둔으로 제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삼별초가 제주에 미친 영향은 첫째, 문물의 전래이다. 문화적으로 낙후된 이 지방에 귀일촌은 삼별초의 임시 수부로 문인과 명승들도 따라 왔을 것이다. 수도의 언어 풍속까지도 전해졌다. 오늘의 제주 방언에 황해도와 경기도의 말씨가 많이 남아 있는 것은 이러한 이유일 것이다. 둘째, 산업상의 영향이다. 삼별초가 제주에 들어와서 경제적으로도 자급자족을 위하여 벼농사와 양잠 등이 시작되었다. 또 건축법과 요업 등의 보급과 고려청자를 만들어낸 고려의 뛰어난 도자기 기술도 제주에 여향을 미쳤다. 셋째는 고려 무인들이 갖는 불굴의 호국정신이다. 삼별초가 평정된 후 탐라인은 몽골인 에게 많은 괴로움과 시달림을 받게 되자, 그들의 호국정신을 흠모하며, 그들을 영웅으로 받들고 신격화하여, 김통정에 대한 많은 전설과 민담이 만들어져 제주에 전해지고 있다. 항파두성이 난공불락의 성이며, 장수물은 김통정의 발자국에서 솟아나온 것이라는 등 삼별초 군사들과 결부하여 민담을 만드는 것들은 모두 이러한 데서 유래한다.

그리고 제주가 당시 고려와 몽골, 몽골과 일본이 연관된 동아시아 역사의 중심지였으며 그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유적이다는 것이다.

항파두성의 발굴 유적으로 고려시대 궁궐배치와 성곽축조방식은 물론 기와, 그릇, 도자기 등을 종합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건축사적 가치가 큰 유적이다.

내성은 민가와 군사 관련 행정시설이 모두 들어서 있었던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설들을 바탕으로 전해진 삼별초 자취는 지금까지도 문화라는 유무형의 형태로 남아 있으며, 제주의 외래 문화 도입을 가능하게 했던 역사적인 장소로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dCollection @ jeju

5. 결론

탐라국시대부터 4·3항쟁에 이르기까지 제주의 역사는 우리나라의 어느 지역보다 더 복잡하고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 자주적인 국가로서 시작한 탐라국은 고려시대에 제주로 편입되었으며, 삼별초의 항쟁을 거쳐 몽골로부터 100여년의 지배를 직접 받기도 하였다. 이 당시 섬이라는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몽골의 영향에 직접적인 영향권 안에 있었으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몽골의 문화가 제주에 전해졌다. 몽골과 고려에 의해 운영된 국영목장에서 말이 길러졌으며, 몽골인과 제주인의 혼인은 새로운 양식의 관습을 만들어내기도 하였다.

이러한 직접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몽골의 지배하에 있었던 고려시대의 제주에 남아있는 몽골유적은 많지 않다. 법화사나 원당사지 오층석탑 정도가 손에 꼽을 정도이다. 그러나 제주에 남아있는 몽골유적이 비록 소수이기만 그 안에서 담겨있는 몽골유적의 가치는 그 의미가 크다. 특히 몽골이라는 외래문화의 직접적인 영향을 100여 년간 받았다는 점에서 그 영향은 쉽게 간과하기 어렵다. 이러한 영향권에는 건축도 포함되어 있다. 몽골에 의해 중창되었을 것으로 여겨지는 법화사의 경우도 몽골과의 관계를 벗어나 설명하기 어렵다. 원당사지 오층석탑도 석탑의 형식이나 재료적인 측면에서 몽골과 제주의 토착성을 함께 생각할 필요가 있다. 몽골과 관련된 삼별초의 항쟁과 그 유적 또한 제주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남아있는 몽골유적을 토대로 그 안에 담겨진 건축적 의미와 가치를 새겨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현재 제주에 남아있는 몽골유적을 살펴보고, 그 실례를 중심으로 몽골유적이 가진 건축적 의미와 가치를 밝혀보았다. 본 연구에서 몽골유적을 살펴본바 다음과 같은 건축적 의의를 찾을 수 있었다.

원나라에서 경영했던 사찰 중의 하나인 법화 사를 통해 법화사가 원 황실의 주도하에 실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법화사는 한국역사에서 원 간섭기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원 황실의 영향력 등을 실체적으로 확인시켜주었다. 또한 제주의 지정학적 위치가 어떤 역사적 상황을 불러 일으켰는지 보여주는 역사경관으로도 가

dCollection @ jeju

치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원당사의 경우, 원당사지와 관련된 제반 사실을 미루어 볼 때, 원당사가 기황후와 관련을 맺어 창건되었다는 구전은 과장되었다고 하더라도, 창건 시기는 고려 후기에 해당하는 몽골의 제주 지배기였고, 창건의 주도집단은 몽골족이었다고 파악된다. '원당사지 5층 석탑'은 현무암이라는 재료의 사용과, 특이한 기단부의 구조, 첫 층 탑신의 감실, 각 층의 옥개석 형태로 보아 원나라 지배 시기인 고려 후기에 제주의 지역성과 몽골의 영향이 함께 조형된 결과로 파악되었다.

삼별초의 경우 세 가지 측면에서 영향을 미쳤다. 첫째, 문물의 전래이다. 문화적으로 낙후된 이 지방에 귀일촌은 삼별초의 임시 수부로 문인과 명승들도 따라 왔을 것이다 수도의 언어 풍속까지도 전해졌다. 오늘의 제주 방언에 황해도 경기도의 말씨가 많이 남아 있는 것은 이러한 이유이다. 둘째, 산업상의 영향이다. 삼별초가 제주에 들어와서 경제적으로도 자급자족을 위하여 벼농사와 양잠 등이 시작되었다. 또 건축법과 요업 등의 보급과 고려청자를 만들어낸 고려의 뛰어난 도자기 기술도 제주에 여향을 미쳤다. 셋째, 고려 무인들이 갖는 불굴의 호국정신이다. 삼별초가 평정된 후 탐라인은 몽골인에게 많은 괴로움과 시달림을 받게 되자, 그들의 호국정신을 흠모하며, 그들을 영웅으로 받들고 신격화하여, 김통정에 대한 많은 전설과 민담이 만들어져 제주에 전해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몽골과 연결된 유적들이 제주의 건축과 일상에 많은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역사적, 문화적 접근을 통해 몽골과 제주의 관계와 몽골유적 건축적 의미와 가치를 살펴본 결과 몽골과 제주는 역사적, 문화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몽골의 문화가 영향을 주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몽골과 제주의 관계에 대한 역사적, 문화적 고찰은 유의미함을 알 수 있었다.

dCollection @ jeju

참고문헌

1. 김일우, 제주 몽골을 만나다, 제주문화예술재단, 2010(단행본)
2. 김영돈, 현을생, 제주 성읍 마을, 대원사, 1989(단행본)
3. 김형준, 문전본풀이를 통해 본 제주전통주택의 경계공간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3권 3호, 2007. 3(논문)
4. 김석윤, 19세기 제주도 민가의 변용과 건축적 특성에 관한 연구, 명지대 박사학위논문, 1996(논문)
5. 곽혜영, 유재우, 기후환경에 따른 한·일 민가의 건축특성 비교연구; 제주도와 오키나와 지역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25권1호, 2005(논문)
6. 국립제주 박물관, 제주의 역사와 문화, 동천문화사, 2001(논문)
7. 남제주군, 성읍민속마을 종합정비계획, 1994(보고서)
8. 박언곤, 박은영, 제주도 민가의 공간 구성 변화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계획계, 19권2호, 1999(논문)
9. 송병언, 이희봉, 생활문화로 본 제주도 민가 고찰, 대한건축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논문집 계획계, 18권2호, 1998(논문)
10. 양성필, 무속신화의 구조적 고찰을 통한 한국전통주거건축 공간조직의 이해에 관한 연구, 중앙대 석사학위논문, 1996(논문)
11. 이영권, 제주역사기행, 한겨레신문사, 2004(단행본)
12. 정영철, 이해성, 무속의례를 통해 본 제주도전통주거의 공간구조 및 의미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7권1호, 1991(논문)
13. 정영철, 제주도 전통 민가의 공간적 특징 및 의미에 관한 연구, 한양대 석사학위논문, 1991(논문)
14. 제주도 건축사회, 제주도 주거건축의 향토성에 관한 연구, 1992(보고서)
15. 제주도, 성읍민속마을 보존 및 육성기본계획, 1980(보고서)
16. 제주도, 제주도 민속자료, 1987(단행본)

dCollection @ jeju

17. 제주도, 제주의 민속, 제주문화자료총서, 1996(단행본)
18. 제주도교육청, 제주의 전통문화, 1996(단행본)
19. 제주문화예술재단, 화산섬, 제주문화대탐방, 제주특별자치도, 2009(단행본)
20. 조성윤, 이상철, 하순애, 제주지역 민간신앙의 구조와 변용, 백산서당, 2003 (단행본)
21. 최재권, 제주지역 농촌주거공간의 생활문화적 특성과 변화에 관한 연구, 중앙대 박사논문(논문)
22. 현용준, 제주도 무속 연구, 집문당, 1986(단행본)
23. 현용준, 제주도 무속과 그 주변, 집문당, 2002(단행본)
24. 현용준, 제주도 신화의 수수께끼, 집문당, 2005(단행본)
25. Meiss, Pierre von, 정인하 外 譯, 형태로부터 장소로, 시공문화사, 2000 (단행본)
26. Turner, V. & Turner, E., Image and Pilgrimage in Christian Culture: Anthropological Perspective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78(단행본)
27. Duncan, Carol, Civilizing Rituals: Inside Public Museums, Routledge, 1995(단행본)

dCollection @ jeju

JEJU NATIONAL UNIVERSITY 1952

Abstract

A Study on the Architectural Significance of the Mongolian Heritage in Jeju

Badmaanyambuu Oyunmandakh

Master of Science Dissertation
Department of Architectural Engineering
Graduate School of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Hyoung-Jun Kim

From Tamnaguk to the 4·3 resistance, Jeju's history has more complicated and deeper than any other region. In the Goryeo period, Tamnaguk started as a independent state was incorporated in Jeju, and had been under control of Mongloia for more than a century after the Sambyeolcho's fighting. At that time, it was influenced directly by Mongolia for its island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Mongolian culture was introduced to Jeju on various sides.

dCollection @ jeju

Horses had kept in a state farm of Mongolia and Goryeo, and a marriage between a Mongolian and a Jeju native created a fresh tradition.

Though this direct influence, there remain few Mongolian ruins in the Goryeo period under control of Mongolia. It is counted that few examples such as the Beopwhasa, and the five-level stone pagoda of the Wonkaksa. Despite a small number of Mongolian ruins, their values are deeply significant. The influence cannot be overlooked because of direct effect of a Mongolian foreign culture for more than a century. These influenced areas include a architecture. Beopwhasa considered to be recreated by Mongolia cannot be explained without a relation with Mongolia. In the five-level stone pagoda of the Wonkaksa, indigenousness of both Mongolia and Jeju is quite considerable for aspects of form and material. The Sambyeolcho's fighting and its ruins also are needed to be reconsidered because of their large influence with Jeju. It is important to consider inherent architectural meanings and values based on remaining Mongolian ruins.

In this paper, present remaining Mongolian ruins in Jeju are examined under this subject, and their architectural meanings and values about examples are discovered mainly. Mongolian ruins examined in this research include 1) the grazing land of a Jeju horse and the birthplace of the Jeju horse farm(Susampyeong) 2) the great wall of Hwanhae, 3) Dongjewon and Songdamcheon, 4) remains of the last battle against Mongolia of Hangpaduri and ruins of inside and outside of Hangpaduri castle, 5) Beopwhasa, 6) the five-level stone pagoda of the Wonkaksa, 7) the memorial stone of Mrs. Jeong, a woman of virtue, the square graveyard of Samsaemiorm of Yousuam-ri, and Bonhyangdang of Go-nae.

We analyzed relations between Mongolia and Jeju from historical and cultural approaches based on above research objects, examined architectural

Collection @ jeju

meanings and values, and found that Jeju had close historical and cultural relations with Mongolia and it was influenced by Mongolian culture in various aspects. From these aspects, it is significant that a historical and cultural consideration of relation between Mongolia and Jeju.

Collection @ jeju